

9  
2022  
VOL. 315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百年顧客



## hotel 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AIRLANGGA  
restaurant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info@palace.co.id

## Benefit

### 혜택

고주동을 포함한 자바 팰리스 호텔 내식 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 팰리스 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 팰리스 호텔 골프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 팰리스 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 자바 팰리스 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이크 제공  
(사전 예약 필요)

JOIN NOW  
0001

privilege

Annual Fee  
IDR. 4,500,000 nett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 8/15

# Hyundai STARGAZER

## Bintang baru keluarga.



## Test drive now.

※ 가까운 쇼룸에서 시승 하실 수 있습니다.

### 현대 어슈런스 프로그램\* (2022년 12월 말까지 구매고객 대상)



사고시 신차 교환\*  
(1년내 75%이상 차량 전손 시)



고객 안전 프로그램\*  
(1년내 사고시 1인당 최대 1억 루피아 7명까지 치료비 지원)



잔존가치 3년 70% 보장\*



금융 안전 프로그램\*  
(1년내 사고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시 잔여할부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홈페이지 및 가까운 딜러 또는 플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유예 할부 (~3년) :
  - 월 납입금 최저 2.4 Juta
  - 차량 가격 50% 만기 시 상환
- 장기 저이자 할부 (~7년) :
  - 월 납입금 최저 3.1 Juta
- 저선수금 할부
  - 초기 선수금 최저 40 Juta

※ 금융상담: Sunindo KB Finance, 신한은행

### 특별 구매 혜택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초청\*

\*7월~9월 구매고객 대상 3명 추첨



**3+1 YEARS WARRANTY**  
/100,000 km

**3+1 YEARS FREE SPARE PARTS**  
/60,000 km

**5 YEARS FREE MAINTENANCE**  
/75,000 km

HYUNDAI

## 월간 한인뉴스 9 2022



표지사진: Keraton Yogyakarta,  
2022년 8월 7일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흥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포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8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9

제3회 ‘코라스 챔피언십’ 열려

10

김재훈의 ‘세무 TALK’

– 회계장부의 중요성

12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이야기 57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contents

2022. 9. 통권 315호

20	40	52
문법왕 〈민선희〉	두개의 시선 – 살아있는 영웅 〈헬른 하르소노〉	스마랑 한인회 – 77주년 한·인니 광복절 기념 음악회
24	42	54
자카르타 맛집탐방 KATSUTOKU 〈주윤지〉	행복에세이 – 슬픔에 대한 단상 〈김준규〉	반려동물, 랜선집사
26	44	56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HMMI 방문견학	세남매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지침서 〈이상민〉	의약품 개발공정과정, 그 일부분을 알아보자 〈조옹희〉
27	47	58
찌까랑한인회 창립총회 및 안윤근 초대 회장 취임식	aT, 족자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운영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3) – 분쟁 해결 방법 〈이승민〉
28	48	62
[인터뷰] 족자 유치호 한인회장	[열두 달의 식물칼럼 11] 할까? 말까? 할 땐 해 보는 것! 〈권영경〉	[편집장 모니터]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 〈홍석영〉
30	51	68
“한국인이 본 인도네시아, 1995년 & 2022년 〈조연숙〉	민주평통 인도네시아지회, 성 김대사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생활정보
34		
피터 에르버르펠트 〈사공경〉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는 독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4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7조 달러를 달성 하길 꿈꾼다”며 “빈곤율 0%에 근접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후 취임식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인도네시아 독립 77주년을 기념하는 국정연설에서 “인도네시아가 외교 역량의 정점에서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인도네시아가 오는 2030년 독일과 영국 GDP 규모를 넘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나아가 ‘유엔미래보고서’는 205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에 이어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망은 조코위가 품은 비전에 실현 가능성을 더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며 내년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는 물론 세일즈 외교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G20 의장국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대응에 나섰다. 아세안의 맹주이자 중립외교를 펼치는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평화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우뚝 섰다.

동유럽 전쟁이 한창인 지난 6월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모두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시장으로의 곡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을 설득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6월 26일 독일에서 개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G7 국가에게 우크라이나 평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어 7월 말에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7월 26일에 먼저 베이징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 G20 정상회의 및 서방-러시아 간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후 2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례로 만나 각국 현안과 세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코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 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심화, 다자주의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사실상 중단했던 대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 도쿄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중국 남·동 중국해 현상 변경을 염두해두고 방위·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수력발전소 사업에 436억엔(약 42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에 대응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마지막 순방국가인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를 포함해 대(對)아세안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 기업들이 9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다며 올해 말부터 투자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철강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개발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임을 다시 확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치가 안정을 찾자 외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21년 7월 코로나19 델타변이 2차 대유행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59.3%, 2022년 4월에 식용유 가격 급등하면서 59.9%로 각각 하락했지만 2014년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중립외교의 아이콘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앞으로도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맹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2022년 G20 의장국으로 올해 11월 발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2023년은 아세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인도네시아 외교의 지평이 더욱 넓어진다. 2억8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수백개의 종족과 언어를 품은 인도네시아가 경제와 외교는 물론 문화도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

글: 신성철 논설위원

##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대사관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한인사회 주요인사 및 대사관 관계자,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박태성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하였으며 한인회 박재한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를 전했다.

박태성 대사는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일관계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성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박재한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고려독립청년단 3인이 항일 의거를 하다 자결한 곳을 포함해 역사적인 장소 두 곳에 표지석을 세우는 일을 추진 중이다”고 밝히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광복과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통합의 시대를 이끌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한 광복절 경축식은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



## 제3회 ‘코라스 챔피언십(KORAS CHAMPIONSHIP’ 열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제3회 ‘코라스 챔피언십’(KORAS CHAMPIONSHIP)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 주최로 Damai Indah(PIK)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 8월 15일 KORAS (KOREAN ASSOSIATION) CHAMPIONSHIP으로 새롭게 시작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골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다. 제2회 코라스챔피언십이 열린지 3년만이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2020년 3월부터 여러 한인기업의 협력으로 마스크지원, 기부품 전달, 기부금 기탁, 메디스트라·실로암병원 한인전담 시스템 협약, 중증 감염자 한국이송을 위한 전세기 편성, 백신접종, 격리 지원 물품 및 구급키트 보내기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10월에 있을 ‘평화 기원 걷기 대회’와 11월 ‘케이팝 공연’ 후원과 12월 ‘송년의 밤’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나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태성 대사는 “광복절 경축식과 특별행사로 하나되는 특별한 날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홀인원 같은 행운이 동포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찬을 마친 참가자들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대회를 시작해 5시간 뒤 행사장으로 입장해 사진을 감상하며 만찬을 즐겼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는 코참 송창근 전회장과 한인회 6대1기 손한평, 김종현, 김희년, 채영애 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행사였지만 MC의 재치있는 입담과 케이팝 커버댄스 팀의 공연으로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었다. 코라스 챔피언십 그린자켓의 주인공은 김종현 수석부회장이 차지했다. 행사의 꽃이었던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 Medalist: 김종현
- 홀인원: 양영연
- Winner: A. 장윤하, B. 김윤기,  
(여) 박미희
- 1st Runner Up: A. 강호성, B. 서광호
- 2nd Runner Up: A. 이근대, B. 심태용
- 77타상: 임종려
- Nearest: 김우현
- Longest: 천상연

(사진 참고 본지 61쪽)



## 회계 장부의 중요성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회계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기록부로서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된다.

주요부란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개장은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장부로서 원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총계정원장은 분개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회계 장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결국 자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장부 의무로부터는 제외되지만 보조 기록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 순소득 계산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조세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사업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활동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보조 기록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8조 2항)

상기에 언급된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신뢰와 명료성 또는 사실성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인도네시아에서 라틴 문자, 아라비아 숫자,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로 기장되어야 한다. (제 28조 4항)

상기 규정에서 화폐단위는 루피아,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할 경우 신청한 화폐단위와 다른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회계기간 개시 3개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기장한다. (제28조 5항)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장부 방법이 변경 및/또는 적용 회계 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6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28조 7항)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겠다.

	Debit	Credit
200,100	180,650	
1,452,600	1,355,900	
25,305	30,500	
20,620	20,350	
1,698,625	1,587,400	
<b>2,770,836</b>	<b>2,289,410</b>	
32,062	30,950	
112,000	17,000	
255,000	17,000	
<b>35,260</b>	<b>3,000</b>	
<b>434,322</b>	<b>3,000</b>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회계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은 인도네시아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납세 의무자의 거주지, 또는 법인 납세 의무자의 소재지에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11항)

장부 및 기타 증빙서의 보관 연한은 10년이라고 하겠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만 첨부되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기록, 서류 또는 소득, 사업활동,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제 29조 3b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으로 기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data 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data 보관을 유지하지만, 일반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에 기장대행을 맡기거나 범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외부 기장 대행의 경우에는 KJA(Kantor Jasa Akuntan) 또는 KAP(Kantor Akuntan Publik) 등 정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범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 기장을 할 경우에는 data backup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끝>



멘텡 소재 Jalan Latuharhary No. 6의 야니장군 자택은 그와 9월 30일  
쿠데타로 희생된 장성들을 위한 박물관이 되어 있다.

지난호에 이어

수반드리오 외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은래 수상은 ‘충’ 브랜드의 소총 10만정의 무상공급을 제의했는데 9월 30일 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도 그 인도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수까르노는 이 무기들로 제5의 군대를 무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군의 지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언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자신을 축출할지도 모른다고 여겼으므로 자신이 PKI를 통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5의 군대창설은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 속셈을 깨뚫고 있던 육군 고위장성들은 당연히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육군사령관 아흐맛 야니 장군과 나수티온 국방장관은 공산당의 사병을 양병하는 일이라 여겨 이 구상을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제5의 군대

창설을 둘러싼 공방은 군과 공산당 사이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그러자 시의적절하게도 5월 29일 ‘길크라이스트 서신’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 편지는 영국 대사 앤드류 길크라이스트가 런던 외무성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현지 군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영국이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를 전복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지 군의 친구들’ 이란 보수적인 장성들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제5의 군대 창설을 반대하는 군장성들을 숙청할 빌미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수반드리오 외상 겸 정보국장이 꺼내 든 이 편지는 군에 대한 수까르노의 의심과 경각심을 더욱



말년의 수까르노

보국(StB)에서 그 길크라이스트 서한을 위조해 소련을 통해 넘겨준 것이라고 1968년에 주장했다. 그로 인해 9월 30일 쿠데타가 터져 인도네시아군 고위장성들 다수가 죽었으니 그 공작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1965년 8월 17일 독립기념 일 연설에서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타 공산주의 정권들과 반제국주의 동맹을 맺을 것이며 군은 정치에 절대 간여하지 말라는 그의 의지를 밝혔다. 이 연설에서 그는 농부와 노동자들을 무장시키는 제 5의 군대창설을 승인함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한편 수까르노가 대내외적인 정치 부문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동안 간과된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정부가 군비충당을 위해 돈을 마구 썩어낸 결과 1964~1965년 사이 연 600%에 이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수출전문 대단위 농장부문의 쇠퇴와 창궐하는 밀수로 인도네시아는 외환부족에 허덕여야 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방과 공산진영 양쪽에서 마구 끌어와 산적해버린 차관들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실한 모라토리움 상황에 임박하고 있었다. 정부예산의 대부분은 군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도로, 철도, 항만, 공공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교통 인프라의 악화와 열악한 농업수확량은 곳곳에서 식량부족을 가져왔다. 중소기업부문은 투자부족으로 인해 말라 비틀어져 갔고 산업설비는 생산능력 대비 20% 정도의 가동율을 보일 뿐이었다. 한때 인도네시아 독립의 원동력이었던 전국민의 자부심이었던 인도네시아군도 이제 창궐한 부정부패로 인

부추겼다. 훗날 귀순한 체코 공작원 라디슬로프 벗만은 PKI의 요청에 의해 인도네시아 군부의 반공주의 강경파 장군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정

해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결림돌이 된 듯 보였고 이를 위해서도 수뇌부를 갈아치워 군의 체질을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편만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관심부족은 경제적 곤궁에 빠져 있던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말년으로 접어들던 수까르노 자신과의 사이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9월 30일 쿠데타가 벌어지던 당시 인도네시아 민중의 경제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달렸으므로 수까르노에 대한 민중의 지지도 크게 하향곡선을 그었다. 애국심의 결집을 요구한 말레이시아 분쇄정책 역시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것이었으므로 일반 민중들은 달가와 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서 식료품값도 천정부지로 뛰었으므로 기아선상을 혜매게 된 민중들은 쌀,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야 했다. 가격인상을 주도한 요인들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결정된 전군 급여의 500% 인상과 물품수급을 주도하던 화교상인들에 대한 축출정책이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물품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포대자루 천으로 옷을 지어 입기도 했다.



현관문에 보존된 당시의 총탄자국(좌), 현관 안  
اني장군이 피격되어 쓰러진 타일바닥(우)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군을 배불리기 위해 정작 자신들은 배를 끓어야 했던 것이다.

한편 수까르노 자신은 경제문제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도, 그럴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새로운 사상적 컨셉들을 생각해 냈는데 그건 예로부터 그가 가장 재능을 보인 부분이었다. 그때 제창한 사상 중 하나가 뜨리삭띠 (Trisakti)였다. 이는 정치적 주권, 자급자족경제, 그리고 문화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홀로 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나 허울 좋은 이 말은 실상 인도네시아를 국제사회속에서 독불장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뜨리삭띠를 주창하면서 사용했던 수사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지도자들이 자급자족을 역설하며 똑같이 사용했던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한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수까르노도 환갑을 넘기고 병을 얻어 얼굴이 부어 올랐고 1964년 초부터 1965년 9월 30일 쿠데타가 벌어질 때까지 와병설이 과다하게 퍼지면서 수까르노가 사망하면 벌어지게 될 권력투쟁 시나리오와 음모설이 호사가들 사이에 분주히 오고갔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기의 스캔들로 여인들의 성적 상상력을 부추겼던 그의 여성편력도 이젠 도덕적 비난을 불러 올 뿐이었다. 국민들은 점차 수까르노의 독재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는 시시각각 1965년 9월 30일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다가 갔다.

## 9월 30일 쿠데타

1965년 10월 1일 새벽 여섯명의 최고위 육군장성들이 납치, 살해되는 ‘9월 30일 쿠데타’가 벌어졌다.

아흐맛 야니 장군의 집엔 보통 11명의 군인들이 경호원으로서 상주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 여섯



자택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에서 아니장군이 반란군 병사의 뺨을 칼기고 있다.

명이 충원되었음을 아니도 알고 있었다. 이들 충원병들은 라티에프 대령의 부대에서 보내온 사람들이었다. 라티에프는 9월 30일 쿠데타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이들 여섯 명은 9월 30일 밤 야간 경비조로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날 밤 야니의 부인은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외부에서 파티를 즐겼는데 그녀가 집에서 나서던 밤 11시경 길 건너편에서 야니의 집을 감시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집엔 무장경비원들이 잔뜩 있었으니 말이다. 야니 부인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 9월 30일 밤 9시경부터도 경비조에게 뭔가를 묻던 전화가 일정 간격으로 걸려왔다고 한다. 그것은 쿠데타의 전조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야니 장군은 9월 30일 저녁 7시경, 최고작전사령부(KOTI)에서 온 한 대령과 동부자바 사단장 바수끼 라흐맛 장군 등을 만나고 있었다. 바수끼가 자카르타에 온 이유는 동부자바에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공산당 활동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야니 장군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바수끼와 함께 들어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잠든 야니 장군 자택을 10월 1일 새벽 밀어닥친 200여 명의 군인들이 포위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급히 부른다며 현관문 앞에서 야니를 둑촉했다. 이른 새벽이어서 뭔가 수상했지만 야니는 일단 따라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우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 했는데 병사들은 이를 제지하며 당시 복장 그대로 따라나서라며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육군사령관 아흐맛 야니는 일개 병사의 위협에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독립전쟁 당시부터 수많은 전투에서 네덜란드군과 싸웠고 수마트라 미낭까바우의 RRRI 반란에서는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반란군을 철저히 격멸했던 화려한 야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격노한 그가 병사의 뺨을 갈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들이 반란군이란 사실을 야니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돌아섰을 때 반란군 병사 한 명이 그의 등 뒤 현관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의 소총이 여러 번 불을 뿐자 현관 유리를 관통한 총탄들이 현관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멀어지고 있던 야니의 등에 깊숙히 박혔다. 피격된 야니는 그 자리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져 바로 숨을 거두었다. 거목이 쓰러지는 것은 그렇게 한 순간이었다. 강직함과 지혜로움으로 명성을 얻었던 그가 오래도록 살아남았다면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고 수하르토가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반란군 병사들은 야니의 시신을 트럭에 태워 빠른 거리에 루방부아야의 반란군 본부로 향했다.



체포되는 수쁘람또 소장 (루방부아야 전시관 디오라마)

10월 1월 새벽 수쁘람또 소장이 즐겨 그리던 그림도 그리지 못할 정도로 치통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반란군들이 그의 멘텡 자택을 급습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군이 아직 국민치안군(TKR)이던 시절 합류하여 1946~1947년 엔 수디르만 장군의 경호원으로 복무했고 1949년 9월 중부자바 디포네고로 사단 참모장으로 취임, 1960년 엔 수마트라 육군부사령관에, 1962년 7월 엔 인도네시아 육군부사령관에 오르는 등 탄탄대로를 달렸던 인물이다.

반란군들은 대통령 경호부대인 짜끄라비라와 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수까르노의 급한 소환에 있다며 수쁘람또의 동행을 요구했다. 그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곧 옷을 갈아 입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병사들이 이를 허락치 않자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반란군들에게 체포되어 루방부아야 지역으로 끌려갔고 반란군들은 상황전파를 지연시키기 위해 집의 전화선을 모두 끊어버렸다. 그의 아내는 빠르만 장군에게 편지를 써 인편으로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그때 빠르만 역시 반란군에게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수쁘람또 소장은 루방부아야로 불잡혀 온 다른 장성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었고 그의 시신은 폐우물 안에 버려졌다.

빤자이딴 준장은 1945년 11월 대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여 1948년 3월 서부 수마트라 부낏 땅기 지역 반란군의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네덜란드의 제2 경찰행동으로 족자의 수까르노 정부가 통째로 나포되자 부낏 땅기 긴급정부의 보급을 책임졌다. 그는 1957년 서독 본에서 무관 생활을 했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온 후 군수뇌부에서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다가 다시 미국 국방대학 장성급 참모과정을 수료한 후 육군참모부의 제4차관보가 되어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2022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 BI, 내년 인플레이션 4%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내내 고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내년에도 고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8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BI가 이날 열린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국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플레이션이 내년 목표인 2~4% 범위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23년 국가예산안에서 내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3.3%로 설정했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인  $3\pm1\%$ 의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BI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인플레이션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7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4.94%를 기록했고, 항공요금과 유류가격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식품가격도 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식량이 과잉인 지역의 식량을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 긴급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배정한 예비비를 운송과 물류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항공사가 항공요금을 더 내릴 수 있도록 항공편을 추가하라고 교통부에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루다항공이 부채구조조정으로 줄인 항공기를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영기업부에 지시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에너지와 유류 보조금과 보상금을 계속 유지하라고 재무부에 요청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이날 인플레이션을 7월의 4.94%에서 4~4.8%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쌀, 육류, 가금류, 설탕, 샬롯, 양파, 고추 등 식품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은행 빠르따마은행(Bank Permata)의 조수아 빠르데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을 가능성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석유제품인 빠르탈릿(Pertalite) 가격 인상 가능성도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이제 막 팬데믹에서 회복한 상태여서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 경제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편의점 대세... 슈퍼마켓·대형마트 부진

인도네시아 유통업계에서 전통적인 강자는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이었으나 최근 편의점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의점은 알파마트(Alfa-mart)와 인도마렛(Indomaret) 등을 말한다.

8월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2년 넘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사회적 활동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인도네시아(Fitch Ratings Indonesia) 올리 뼐라유디 대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졌다며 만일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편의점의 영업실적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헤로수퍼마켓(PT Hero Supermarket)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조 루피아(6,700만 달러)로, 순손실은 670억 루

피아로 추산된다. 대부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올해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소매판매지수(RSI)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알파마트(PT Sumber Alfaria Tri-jaya)와 인도마렛(PT Indomarco Prismatama)은 올해 각각 1천개의 매장을 더 늘릴 방침이다. 한편 CT Corp 그룹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 트랜스마트(PT Trans Retail Indonesia)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부까라빡(Bukalapak)과 자회사 알로프레시(AlloFresh), 알로방크(Allobank) 등과 제휴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강자로 부상한 이유로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이 가까운 거리를 선호 △편의점의 상품 구색도 슈퍼마켓 못지 않게 다양해짐 △택배와 ATM, 공과금 결제,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 “발길 끊어진 자카르타의 일부 몰과 쇼핑센터”

8월 1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디르만과 가뜻 수브로또 거리의 교차 지점이며 자카르타 정중앙에 위치한 쇼핑몰인 플라자스망기(Plaza Semanggi)에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최근 플라자스망기는 방문객이 거의 없어 한산하고 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다.

앞서 2018년 12월 31일 스망기플라자 내에 있는 백화점 센트로(Centro)가 문을 닫았다. 대학교, 공연장 발라이 사르비니(Balai Sarbini)와 오피스빌딩이 주변을 둘러싼 만큼 성업했던 플라자스망기에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 가장 큰 이유는 스망기 교차로가 확장되면서 차량 흐름이 바뀌어 접근성이 떨어진 것.

1990년대까지 쇼핑몰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몰,

블록엠(Mal Blok M)도 유령 몰로 변해 방문객이 끊어지고 매장도 대부분 닫았다. 전자제품을 사려면 인도네시아인은 물론 한국인들도 많이 방문했던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쇼핑센터 글로독시티(Glodok City)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때 휴대폰 판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서부 자카르타에 있는 롯시마스(ITC Roxy Mas)도 쇼핑몰로 방문객이 이전하면서 한산하다.

한편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온 델타마스(Aeon Deltamas), 찌비농 시티몰2(Cibinong City Mall 2) 및 리빙 월드 꼬따 위사따(Living World di Kota Wisata) 등 쇼핑공간 35만 제곱미터가 늘어날 예정이다. 신규 쇼핑몰은 모두 자카르타 외곽에 세워진다.

## 조코위 “인도네시아, 글로벌 리더십 정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리더십의 정점에 서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고 8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6일 녹색과 금색의 방까-블리뚱 전통복장을 하고 국회 연단에 올라 인도네시아 독립 77주년을 기념하는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리더십의 정점에 있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에만 해도 외교에 미미한 관심을 보였던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이 되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에 조코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젤렌스키와 푸틴을 동시에 만난 최초의 아시아 지도자가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도네시아를 평화의 가교로서 환영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우리(인도네시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고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세계 상위 경제대국 20개가 참여하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 되어 11월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아세안 의장국이 된다. 아세안은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유엔은 또한 글로벌 위기 대응 그룹(Global Crisis Response Group)이 식량, 에너지 및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챔피언”으로 선정한 세계 지도자 여섯 명 중 한 명으로 조코위 대통령을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유습 와난디 부회장은 조코위의 외교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됨에 따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습 부회장은 “집권 초기에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국제 정치가 매우 중요하고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습 부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지역과 세계 무대에서 증가하는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며, 이날 국정연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G20을 위한 모든 준비와 그가 한 모든 노력 그리고 계속해서 하려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조코위의 모습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습 부회장은 동의하고 상충되는 국제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갈등이 단 한 번의 회의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에 빠져들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 의장국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2024년 대선후보 간자르 상승세 뚜렷” 여론조사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간자르 빤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지지율과 선호도, 인지도 모두 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8월 22일 사이풀 무자니 연구소(SMRC)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MRC는 2024년 8월 5~13일 기간에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유권자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 86%, 오차범위  $95\pm3.1\%$ 다. SMRC 연구책임자 데니 이르바니는 모든 응답에서 간자르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고 말했다.

인물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들에게 지금 당장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고 묻는 지지율 조사에서, 간자르 주지사(17.6%), 빤라보워 수비얀또 국방장관(12.6%), 조코 위도도 대통령(12.5%),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9.1%),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4.3%) 순이었다. 지지율 2% 미만의 하위 그룹에는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민주당 대표,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 뿐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안디까 빠르까사 통합사령관 등이 언급됐다.

SMRC가 2021년 3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실시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간자르 지지율은 6.1%에서 17.6%로 상승한 반면 빤라보워는 13.4%에서 1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아니스는 5.4%에서 9.1%로 상승했다.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43명의 이름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지지율은 2021년 3월과 2022년 8월 사이에 간자르는 8.8%에서 25.5%로 크게 상승한 반면 빤라보워는 20%에서 16.7%로 하락했고, 아니스는 11.2%에서 14.4%로 소폭 상승했다.

대선후보 3명만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했을 때 지지율은 2021년 3월과 2022년 8월 사이에 간자르는 25.5%에서 32%로 상승한 반면 빤라보워는 34.1%에서 30.8%, 아니스는 23.5%에서 21.9%로 각각 하락했다.

각 인물을 좋아하는지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 2021년 3월과 2022년 8월 사이에 간자르는 83%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빤라보워는 75%에서 71%로, 아니스는 77%에서 74%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각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인지도 조사에서, 간자르의 인지도는 54%에서 71%로 크게 상승한 반면, 빤라보워는 96~98%를 유지했고, 아니스는 81%에서 85%로 소폭 상승했다.

데니 연구책임자는 간자르의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으로 1) 다른 후보와 비교해 일관되게 선호하는 캐릭터를 유지했고 2)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고 3)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코위 지지자들이 간자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지난 7월호와 8월호에 걸쳐 {me-i}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본개념에 모든 단어가 ‘칼같이’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읽기 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i} 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번 호에서는 여러가지 글 속에 나타나는 쉬운 {me-i} 단어 예시를 공부해 보고, 다음 10월호에서는 같은 어근이지만 뜻이 구분되는 me-i, me-kan 단어\* 몇가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meyakini—meyakinkan, memperingati—memperingatkan, menandai—menandakan 등

## ★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관광지 tempat wisata ☆반드시 가야한다, 꼭 가야 한다 harus mengunjungi, wajib mengunjungi  
☞ tempat wisata yang wajib dikunjungi ✓ mengunjungi = berkunjung ke

Ketika berlibur ke Seoul, jangan lupa untuk berburu wisata kuliner. Selain menikmati berbagai tempat wisatanya yang menarik, ada banyak wisata kuliner di Seoul **yang wajib dikunjungi**. Dijamin kelezatan berbagai kuliner tersebut akan membuat Anda ketagihan dan ingin mencobanya lagi.

서울로 휴가를 간다면 식도락 여행을 잊지 마세요. 매력적인 관광지도 즐길 수 있지만, 서울에는 꼭 가봐야 하는 식도락 여행지도 많아요.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 또 맛보고 싶을 거예요.

- ◆ **berburu** : mengejar atau mencari
- ◆ **wisata kuliner** : 식도락 여행(관광) kuliner = 영어 **culinary**
- ◆ **dijamin**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장담하다 “Aku jamin deh”. 나만 믿어. 내가 장담해 “Dijamin, gak?” 확실해? 장담할 수 있어?

- ◆ **kelezatan** 맛 (맛있는 맛)
- ◆ **ketagihan** 중독을 일으키다 v. Terus-menerus meminta (ingin) a. Merasa sangat ingin akan sesuatu “Pasti ketagihan.” 또 먹고 싶을 걸요? “Bikin nagih.” 또 먹고 싶네

### ★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 ~에 가다 datang ke, mendatangi ↗ (tempat) yang sering didatangi

Hanok Village ini merupakan kompleks perumahan di kota Seoul. Bangunan perumahannya masih mempertahankan arsitektur rumah tradisional Korea. Karena keunikannya inilah kompleks perumahan ini **sering didatangi** wisatawan untuk berfoto-foto di depan rumah-rumah yang memiliki desain yang cantik.

이 한옥 마을은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단지이다. 집을 지어 놓은 모습이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점 때문에 관광객들이 한옥 마을을 자주 찾아 예쁘게 지어진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perumahan** 주거지, 주택단지 (daerah perkantoran 오피스가)

☆**bangunan** : sesuatu yang dibangun (seperti gedung, rumah, menara)

### ★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학교

- universitas yang paling populer di Korea
  - universitas yang paling diminati di Korea ✓ meminati = menaruh minat pada
  - universitas yang paling diincar di Korea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려고 하는)
  - universitas favorit di Korea
- (a)~(d) 모두 사용 가능!

☆**minat** : kecenderungan hati yang tinggi terhadap sesuatu; keinginan

어딘가에 마음이 쏠리는 경향; 원하는 마음

☆**mengincar** : ki. (비유) sangat menginginkan, sangat menghendaki 매우 원하다, 목표로 하다

✓ Persaingan Super Ketat! Ini Universitas di Korea Terbaik yang Paling Diminati dan Jadi ‘Incara’

아주 치열한 경쟁! 한국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고 목표로 하는 최고의 대학!

- ✓ Prodouk rawat kulit Indonesia **banyak diminati** oleh pengusaha spa dan dianggap dapat bersaing dengan produk dari Korea Selatan dan China, dua negara yang menjadi pengekspor utama produk perawatan kulit ke Peru. (Cosmobeauty Peru 2022)

인도네시아의 피부관리제품은 스파 사업가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페루로 피부관리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한국과 중국의 제품에 비교했을 때도 인도네시아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 ✓ **Produk-produk perikanan Indonesia yang diminati Korea Selatan** meliputi ikan makarel, ikan layur, dan cumi. 한국이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수산물에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가 있다.

#### ★~의 (재정적)지원을 받다 : dibiayai

Putrinya **Dibiayai** Kuliah S2, Satu Keluarga dari Papu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Ganjar (기사 제목 : 파푸아 가족, 자녀 석사 교육비 지원해 준 간자르 주지사에게 감사 인사) Satu keluarga dari Waropen, Papua, **mendatangi rumah dinas** Gubernur Jawa Tengah (Jateng) Ganjar Pranowo untuk mengucapkan terima kasih karena telah membantu biaya kuliah S2 anak mereka di Semarang.

파푸아 와로펜 지역 출신인 한 가족이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 관저를 방문했다. 딸이 스마랑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주지사가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Program Beasiswa Kalla diberikan pada mahasiswa baru yang berprestasi dan **dibiayai** hingga lulus.

칼라(재단은) 성적이 좋은 대학신입생에게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제공한다.

Pengerjaan Jembatan Kaca Tinomoyo di Kota Semarang dikebut. Pembangunan jembatan kaca **dibiayai dengan anggaran** sekitar 11 miliar.

스마랑 시의 티노모요 유리 다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 다리 건설에는 1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dibumbui** ① 양념을 하다(membumbui) 주로 di-형태로 쓰임 ② (비유) 곁들이다, 가미하다

Tips membuat Ikan Goreng Renyah dan Matang Sempurna, Salah Satunya Simpan di Kulkas Setelah Dibumbui 바삭하고 완벽하게 익은 생선을 맛보고 싶다면, 양념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

Setelah **dibumbui** dan dilumuri tepung, potongan daging ikan sebaiknya jangan digoreng langsung. Tempatkanlah pada suatu wadah kedap udara dan masukkan ke dalam kulkas, setidaknya selama setengah jam. Tujuannya agar telur dan tepung semakin menyatu pada daging ikan. Selain itu, mendinginkan ikan bisa mencegah ikan terlalu matang ketika digoreng nantinya.

양념을 하고 밀가루 반죽을 바른 생선은 바로 튀기지 않는 게 좋다. 잘라둔 생선을 진공상태의 통에 넣어 냉장고에 최소 30분 정도 두어라. 계란하고 밀가루 반죽이 생선에 잘 스며들기도 하고, 생선을 저온에 둠으로써 나중에 튀겼을 때 너무 익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Bagi kamu yang bosan dengan drakor percintaan yang itu-itu saja, berikut ini ada rekomendasi drama Korea dengan gendre fantasi romantis **yang dibumbui dengan hal supernatural**.

그렇고 그런 사랑 드라마에 질렸다면, 초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로맨틱 판타지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겠다.

나를 쑥쑥 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d817@daum.net](mailto:nusantard817@daum.net)



## KATSUTOKU (Senayan)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온 9월입니다. 올해도 시간이 매우 빠르게 잘 가는군요~ 오랜만에 일식당 맛집인 <KATSUTOKU>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식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식 수제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Plaza Senayan 몰 옆에 붙어있는 오피스 빌딩인 Sentral Senayan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laza Senayan 지하 The Foodhall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더 수월하실 거에요. 이 식당의 예전 이름은 <Katsusei>였는데요. 예전부터 자카르타 내 수제 돈가스 맛집으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에 공간 확장 등 깔끔하게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다시 손님을 맞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공간이 2배이상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맛있다는 거죠~

특히, 이 곳은 메인메뉴가 서빙되기 전에 작은 절구통(?)과 절구방망이 그리고 참깨와 돈가스 소스통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절구통에 참깨를 넣고 절구방망이를 잘게 으깨 준 뒤에 돈가스 소스를 듬뿍 부어주면 고소한 돈가스 소스가 완성됩니다. 자~그럼 바로 추천메뉴 소개 들어갑니다!

우선, Prawn & Pork Tenderloin Katsu Set(265,000루피아++)를 소개합니다. 이 메뉴는 왕새우튀김과 돼지고기 안심 돈가스 세트인데요.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콤보 메뉴이지요. 오동통한 왕새우튀김 2마리는 함께 나온 랜치소스에 살짝 찍어 드시면 되고요~ 두툼한 돼지고기 안심 돈가스는 미리 만들어 논 돈가스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돈가스를 먹기 전에 함께 나온 양배추 샐러드와 미소국을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샐러드 소스는 테이블 위에 두가지 종류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한가지는 꾸덕한 느낌의 참깨 드레싱 소스이고, 다른 하나는 묵은 느낌의 간장 베이스 드레싱 소스입니다.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Pork Sirloin Katsu Nabe Set(188,000루피아++)입니다. 이 메뉴는 돼지고지 등심 돈가스 나베 세트인데요. 나베는 냄비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이자, 냄비에 끓인 찌개 비슷한 일종 전골요리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가스 찌개 또는 돈가스 전골인 셈이죠. 바삭한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반하게 할 정도로 돈가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기가 매우 두툼하고 양이 엄청 많아요. 또한, 나베 국물도 그리 짜지도 달지도 않아 흰쌀밥과 함께 먹기에 딱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 나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꼭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식당에서 흔히 판매하지 않는 장어튀김 메뉴인 Unagi Fry Set(265,000루피아++)와 주중 점심 특선 메뉴인 Pork Tenderloin & Sirloin Katsu Set(109,000루피아++) 등을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식당의 음식들은 튀김옷이 얇고 바삭한 반면, 내용물(고기)은 알찬 것이 특징인데요. 어때한 메뉴를 주문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유일한 단점으로는 가격이 타식당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점…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식당 정보 : KATSUTOKU〉

음식 종류 : 일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30~22:00

주소 : Sentral Senayan 1 Basement 1  
Unit 10 Bl, Jl. Asia Afrika No. 8  
Jakarta

\* Google 참고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HMMI 방문 견학



8월 24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은 브카시(Bekasi) 시(市) 델타마스(Delta Mas)에 위치한 HMMI(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법인장 최윤석)을 방문하여 공단을 둘러보았다.



2019년 11월 29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의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여 맺은 MOU를 시작으로 생산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 아세안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약 2조원 투자, 연 25만대 생산능력 갖춘 HMMI는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생산에서 출시까지 절차와 시스템 가동에 이르는 진행은 험난했던 만큼 자긍심이 드러났다.

2022년 3월 16일, 아이오닉 5의 양산을 공식 선언하고 CRETA, IONIQ 5, SANTA FE, STAR-GAZER의 본격적인 생산에 이르렀다. 친환경공정, 작업자 친환경 공장 등 만들고 버리는 것 모두 친환경화하고 기술전수 등의 현지화 나누는 교류 프로그램도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차의 노력은 볼 수 있었다.



## 찌까랑 한인회 창립총회 및 초대 안윤근 회장 취임식

찌까랑 지역의 오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비로소 2022년 8월 25일, 찌까랑 한인회가 탄생했다. 각 계의 인사와 지역주민이 함께한 창립총회는 회칙 인준과 추대를 거쳐 안윤근 회장을 수장으로 찌까랑 한인회의 출범을 알렸다. 2020년 7월 찌까랑 한인방 개소식을 갖고 찌까랑한인사회에 사랑방을 제공해왔다.

양영연명예회장은 “태동이 길었던 만큼 이미 오래된 한인회처럼 친구와 가족같은 찌까랑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안윤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찌까랑에서 화합과 정보교류, 대한민국 홍보에 힘쓰고 원만한 관공서와의 관계도 유지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도 소통에 앞장서며 한층 더 찌까랑 한인사회가 단결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했다.



박태성 대사는 “찌까랑 한인회가 열린공간으로 지역의 한인들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연대와 협력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하였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이미 찌까랑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다. 더욱 살기 좋은 찌까랑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Hidayat 브까시 이민국장은 “브까시군 외국인 중 한인이 2위이다. 불편함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의 공연을 보며 160명의 한인과 현지 관계자들은 만찬을 나누며 찌까랑 한인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 [인터뷰] 족자 유치호 한인회장과의 만남

“족자는 대를 이어 살 만한 좋은 도시”

“재인니한인회와의 소통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

“재인도네시아한인회의 도움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교환과 산소통, 산소포화도측정기, 치료제 등 지원에 감사한다”고 유치호 족자 한인회장이 한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7월 5일 족자 한식당에서 만난 유회장은 “팬데믹 기간에 족자 교민행사는 물론 임원들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족자 한인경제는 대체로 괜찮았다”며 “작년 추석부터 한인행사를 재개해 족자 한인회 사업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이어 앞으로 족자한인회 주최로 진행되는 교민 친목을 위한 행사인 골프대회와 문화행사, 추석과 설 모임, 한식 홍보행사, 자선바자회 등이 팬데믹 이전과 같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치호 회장은 2002년에 족자로 이주해 한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캠핑용 숯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건축사업 등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은 유치호 족자한인회장과의 일문일답

### Q. 족자 한인사회 규모는

A.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200명(80여명의 자녀 포함)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한인은 한인회와 교류하지 않아 정확한 한인수 파악은 안 된다. 팬데믹 기간에 20여명 유학생들이 귀국해 한인수가 감소했으나,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와 인터뷰중인 유치호 회장, 박현우 부회장



유치호 회장

### Q. 족자 한인은 어떤 분야 사업에 종사하나

A. 족자의 한인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골프 장갑을 비롯한 스포츠 장갑 제조업이다. 이 외에도 봉제, 가발, 종묘, 건축업, 요식업 및 농산·임산 가공품 수출업 등이 있다. 골프장갑 제조업이 밀집하다 보니,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 Q. 족자에 골프장갑 제조업이 발달한 이유는

A. 골프장갑의 원재료인 원피는 아프리카에서 수입

하고 인근 지역에 가죽공장이 있어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다. 족자는 인건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저렴하며,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은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다. 족자지역 골프장갑 생산 규모는 미국 시장 수요를 30~40% 충족시킬 만큼 규모가 크다.

#### Q. 족자국제공항에 한국 노선 운항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A. 족자국제공항은 족자 주도 족자 시에서 45km 떨어진 꿀론 뽀로고 지역에 위치해 있다. 2019년 5월 개항해 2020년 3월에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나 곧바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개항 당시 한국 직항 노선을 추진되기도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무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돼 한국 직항이 운행되면 족자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 Q. 자녀 교육은

A. 족자가 교육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한국계 학교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조차 변변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 족자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살라띠가(Salatiga)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자녀와 떨어져 살기도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족자에 위치한 국제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도 한다.

#### Q. 한인사회 분위기는

A. 족자에 사는 현지인들은 순박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느림을 실천하는 삶의 미학에서 그들만의 행복을 엿볼 수 있다. 교민들도 족자 사람들의 품성을 닮아가며, 그들과 서로 배려하며 살고 있다. 족자 한인 중 많은 이들이 1세대뿐만 아니라 2세와 3세들까지 계속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원한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과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 Q. 역사와 문화, 교육의 도시 족자를 소개한다면

A. 자바 섬 중남부에 위치한 족자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명성을 갖고 있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족자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보로부두루(Borobudur) 불교사원과 브람바난(Prambanan) 힌두사원, 이슬람왕국의 통치자 술탄왕궁 크라طن(Keraton) 등 외에도 많은 역사적 유물이 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 유적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가자마다 대학교(UGM)를 비롯해 수백개의 대학교가 있어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 Q. 족자 한글학교는

A. 족자에 사는 교민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40여명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인회 산하의 ‘족자 한글학교’이다. 김은숙 교장과 배혜진 교감을 주축으로 10여명의 교사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화할 계획이다.



# “한국인이 본 인도네시아, 1995년 & 2022년”

## 천년의 미소 인도네시아

김영호 지음 | 정보여행 | 1995년 1월 01일 출간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1995년에도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인의 미소는 신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다. 길을 걷다 눈이 마주치면 ‘슬라맛 시앙’ (Selamat Siang)이라 말하며 미소를 지어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나도 미소로 답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밝아진다. 책 <천년의 미소 인도네시아>의 저자 김영호는 인도네시아 사람의 미소를 책 제목으로 정했을 만큼 인도네시아 사람의 미소를 사랑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람의 미소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소”라고 묘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웃음이 생활화돼있는 나라, 결코 화를 내지 않는 나라, 싸움을 하지 않는 나라, 미소의 왕국”이라고 정의했다. <미소 짓는 장군>(The Smiling General)은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쓴 영문판 자서전의 책 제목이다.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속 수하르토 대통령은 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2022년을 사는 조코위 대통령은 미소를 지을 때도 있지만 굳은 표정이나 무서운 표정을 할 때도 있다. 관공서나 쇼핑몰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예전보다 미소를 덜 짓고 굳은 표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저자 김영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교를 개설하기 전인 1966년 선발대로 인도네시아에 와서 주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참여해 약 7년간 근무하며 인도네시아를 배우기 시작해, 그 후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코데코)와 쌍용건설 인도네시아 등에 근무하며 약 2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천년의 미소 인도네시아>에 기록했다. 이 책에는 1990년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인들이 묘사했던 인도네시아가 담겨 있다. 물론 20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들이 많지만, 미소가 줄어든 것처럼 달라진 모습도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5월 사태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퇴진, 2000년대 잇따라 발생한 발리와 자카르타 폭탄 테러들, 민주화와 산업화와 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겪은 2022년의 인도네시아 사람과 <천년의 미소 인도네시아> 속 인도네시아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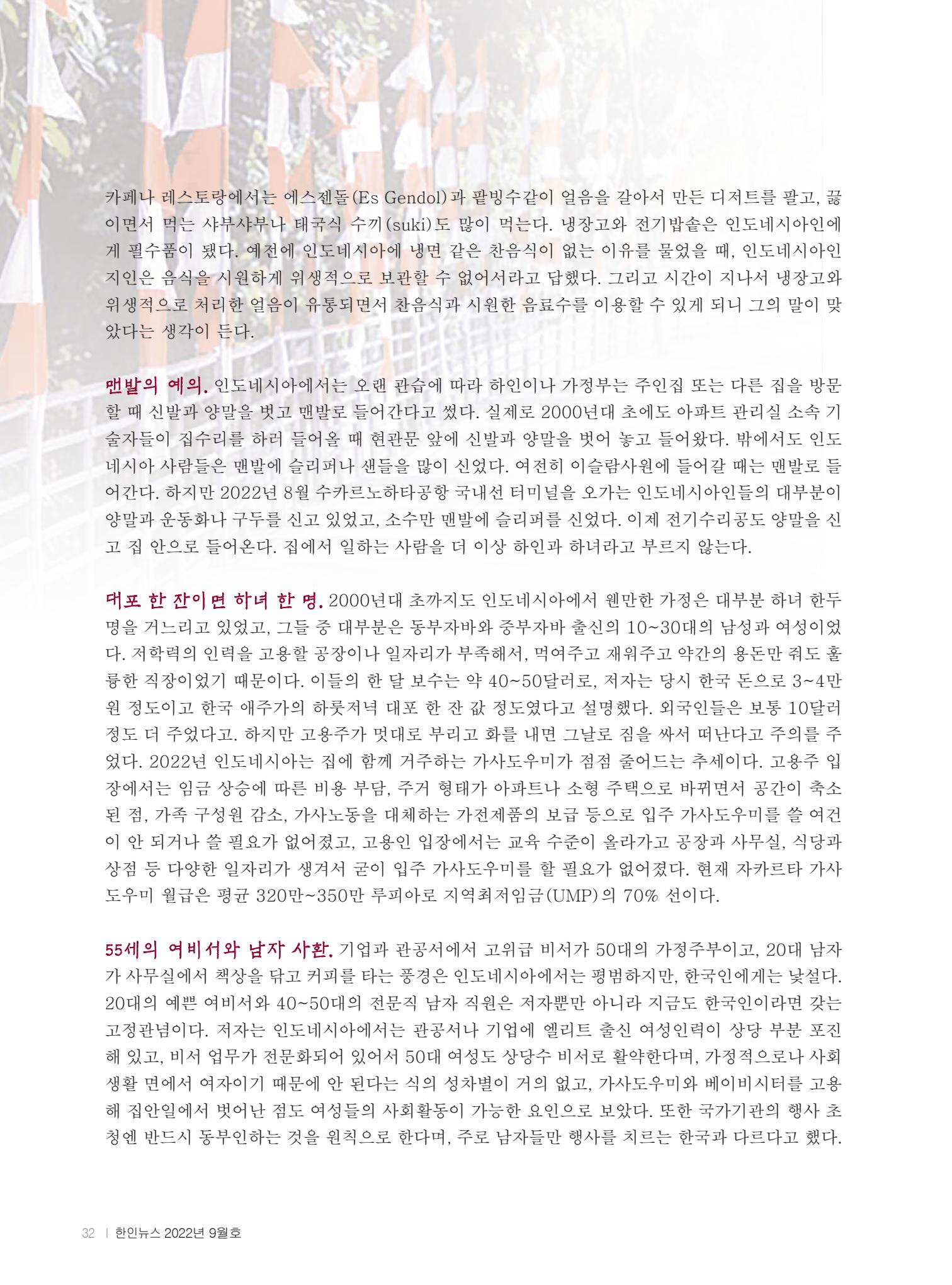
미소와 더불어 **끼 라끼 라(Kira Kira**, 대략 또는 약)는 저자가 꼽은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사람의 특징이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약 90%가 ‘끼라끼라 서른 살’이라고 답하고, 시골사람 중에 자기 부모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썼다. 또 약속할 때 끼라끼라 7시라고 하면 7시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썼다. 2022년에는 끼라끼라를 덜 쓰는 느낌이고, 특히 약속 시간을 말할 때는 끼라끼라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무줄 시계(Jam Karet)**은 우리말로 하면 ‘코리안 타임’ 즉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현지인들이 약속 시간에 30분 늦는 것이 보통이고 기다리는 사람도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썼다. ‘빨리빨리’ 가 없고 만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Alon Alon Asal Kelakon. 늦더라도 제대로라는 의미의 자바어)가 지배하는 나라이며, 군대에서 구보할 때와 비 올 때 피하려고 뛰는 일밖에 없다고 했다. 내 경험으로는 사람만 늦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연착하는 경우가 흔했고, 심지어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공식행사도 일정표에 나온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늦게 시작했다. 이제는 공식행사는 대체로 일정대로 시작하고, 약속 시간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악명 높은 자카르타 교통 체증은 시간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블루버드와 실버버드**는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택시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택시 문화가 당시 한국보다 훨씬 세련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국은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와 승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합승이 만연하던 시절이었다. 저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기사가 사회적으로 꽤 대접받는 직업이었고 대출자와 비슷한 보수를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택시를 함부로 탈 수 없었던 시기가 도래한다. 개혁 시대로 들어오면서 블루버드의 독점이 깨지고 생겨난 중소업체의 택시들은 안전과 서비스 그리고 청결 관리가 안 된 것.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도네시아 택시는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맞는다. 고카와 그랩카 등 온라인 차량호출 서비스 앱들이 요금 시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해 경쟁우위를 점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중소택시업체들이 과산하고, 고카나 그랩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인 블루버드와 실버버드만 남았다.

**포장마차에서 커피 한 잔.** 저자는 인도네시아는 차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지만 다방 같은 것은 없었고, 대신 포장마차(노점) 같은 곳에서 커피 같은 차 종류를 팔았다고 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어디서나 스타벅스와 TWG 티하우스 등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카페와 찻집에서 여럿이 와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람들과 혼자서 휴대용 컴퓨터를 켜놓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뜻한 맥주 한 잔.** 저자는 인도네시아에는 미지근한 맥주만 있다며, 인도네시아인이 찬 것을 싫어해서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슬람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회식이나 결혼 파로연에도 술이 없고 술집도 없다고 썼다. 그리고 뜨거운 것도 싫어해서 밥이 나오면 식혀서 먹는다고 했다. 2022년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뜨거운 밥을 먹는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에스젠플(Es Gendol)과 팔빙수같이 얼음을 갈아서 만든 디저트를 팔고, 끓이면서 먹는 샤부샤부나 태국식 수끼(suki)도 많이 먹는다. 냉장고와 전기밥솥은 인도네시아인에게 필수품이 됐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냉면 같은 찬음식이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인도네시아인 지인은 음식을 시원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냉장고와 위생적으로 처리한 얼음이 유통되면서 찬음식과 시원한 음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그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맨발의 예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랜 관습에 따라 하인이나 가정부는 주인집 또는 다른 집을 방문할 때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다고 썼다. 실제로 2000년대 초에도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술자들이 집수리를 하러 들어올 때 현관문 앞에 신발과 양말을 벗어 놓고 들어왔다. 밖에서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맨발에 슬리퍼나 샌들을 많이 신었다. 여전히 이슬람사원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간다. 하지만 2022년 8월 수카르노하타공항 국내선 터미널을 오가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대부분이 양말과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소수만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다. 이제 전기수리공도 양말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이상 하인과 하녀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포 한 잔이면 하녀 한 명.** 2000년대 초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 웬만한 가정은 대부분 하녀 한두 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동부자바와 중부자바 출신의 10~30대의 남성과 여성이었다. 저학력의 인력을 고용할 공장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간의 용돈만 줘도 훌륭한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한 달 보수는 약 40~50달러로, 저자는 당시 한국 돈으로 3~4만 원 정도이고 한국 애주가의 하룻저녁 대포 한 잔 값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은 보통 10달러 정도 더 주었다고. 하지만 고용주가 멋대로 부리고 화를 내면 그날로 집을 싸서 떠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사도우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주거 형태가 아파트나 소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공간이 축소된 점, 가족 구성원 감소,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가전제품의 보급 등으로 입주 가사도우미를 쓸 여건이 안 되거나 쓸 필요가 없어졌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공장과 사무실, 식당과 상점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서 굳이 입주 가사도우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자카르타 가사도우미 월급은 평균 320만~350만 루피아로 지역최저임금(UMP)의 70% 선이다.

**55세의 여비서와 남자 사환.** 기업과 관공서에서 고위급 비서가 50대의 가정주부이고, 20대 남자가 사무실에서 책상을 닦고 커피를 타는 풍경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평범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낯설다. 20대의 예쁜 여비서와 40~50대의 전문직 남자 직원은 저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인이라면 갖는 고정관념이다. 저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관공서나 기업에 엘리트 출신 여성인력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고, 비서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어서 50대 여성도 상당수 비서로 활약한다며, 가정적으로나 사회생활 면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성차별이 거의 없고,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집안일에서 벗어난 점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사 초청엔 반드시 동부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주로 남자들만 행사를 치르는 한국과 다르다고 했다.

**가정의 대소사는** 남편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부인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내외귀빈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과 렛노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전문 관료 출신으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들이다. 여전히 기업과 관공서에 가면 고위직과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여성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오히려 남자 사환은 줄고 있다. 커피는 사무실에 있는 커피메이커를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배달시켜서 마시고, 웬만한 복사는 프린터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외주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는 남녀가 섞여 있다.

**깃발이 휘날리는 나라.** 저자는 8월 17일 독립선언기념일에 거리에 나가보면 장관이라며, 마치 시골 국민학교(초등학교) 운동회날에 만국기가 휘날리듯 집마다 내건 국기가 푸른 하늘을 가득 매운 채 힘차게 휘날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썼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일본이 폐망한 직후인 1945년 8월 17일에 수카르노 집 앞뜰에서 처음으로 적백기를 게양하고 독립선언을 한다. 그리고 이날을 독립선언기념일로 기리면서, 매년 대통령궁에서 당시 게양했던 그 적백기를 게양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독립선언기념일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Lebaran=Idul Fitri)과 함께 양대 축제였다. 인도네시아인들은 7월 중순부터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백기를 활용해 주변을 장식하고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8월 17일에 성대한 축제를 연다. 독립기념일이 현재 사는 이웃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하는 행사이고, 상대적으로 르바란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친지들과 함께하는 축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독립선언기념일은 독립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이유로 행사가 축소되다가 2020년부터 2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2022년 8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행사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어 최근 경제력과 국격 상승으로 커진 인도네시아 사람의 자긍심을 한껏 드러냈다.

<천년의 미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책이 출판된 1995년과 비교해 지금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크게 올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도 더 많이 연구되고 알려졌다.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생각까지 바꾸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종일 미소 속에서 살고 인도네시아가 ‘미소의 왕국’ 이란 별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 저항과 비운의 상징: 피터 에르베르펠트(Pieter Erberveld)



역사박물관(Museum Sejarah) 안뜰에 있는  
Pieter Erberveld 비문 (사진, 사공 경)

그를 처음 만난 날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말이었다. 꼬따 뚜아(Kota Tua)에 있는 역사박물관(구 시청)에서 였다. 박물관 안뜰 후문 출입구 쪽에 2미터 높이의 직사각형 벽이 있었고, 그 위에 있는 돌로 만든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큰 묘비는 비장해 보였다. 안내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자, 피터 에르베르펠트(Pieter Erberveld, 이하 Pieter)의 비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튼튼한 말에 사지가 뚫였으며, 말들은 네 방향으로 달려갔고, 피부가 갈가리 찢어져 온 몸이 흘어지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 참혹한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안뜰의 나무 그늘 아래로 닭과 오리가 한 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글: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그날 이후 Pieter는 나에게 불면(不眠)의 이름이 되었다.

비문의 복제품은 비문 위에 Pieter의 해골이 꽂혀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현재의 따나 아방(Tanah Abang)에 있는 묘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묘비에는 네덜란드어와 자바어로 이렇게 적혀 있다.  
*‘배신자 Pieter Erberveld의 처벌에 대한 혐오 스러운 기억으로. 이제 누구도 결코 이곳에 건축이나, 나무로 작업을 하거나, 벽돌을 쌓거나, 나무 심는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Batavia, 1722년 4월 14일’* 이 비문은 전 금지령이 적힌 기념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 Pieter Erberveld, 그는 누구인가?

그는 1722년에 무슨 이유로 그러한 처벌을 받았을까?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Pieter는 1660년(?)에 부유한 독일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의 엘베르펠트(Elberfeld)에서 태어났으며, 비록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으나, 존경받는 지주이자 바타비아(Batavia 네덜란드 식민기의 자카르타 명칭)의 기병 대장이었다.



Museum Taman Prasasti (묘비박물관)에 있는  
Pieter Erberveld 비문 (사진, 사공 경)

군대에서 은퇴하고 망가 두아 (Mangga Dua)에서 시작한 동물 가죽사업(제혁업)은 성공적이었다.

이미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피터는 아버지에 이어 제혁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유라시아인으로 ‘Indos’ (인도스/ 인도네시아, 유럽, 아시아)의 큰 그룹에 속했다. 당시 백인 여성들이 부족했으므로 많은 유럽 남성들은 현지인 혹은 아시아계 여인들을 현지처로 두었다. 종종 빨리 출신의 예쁜 노예 소녀도 있었다. 대부분 현지처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의 자녀들 중 일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피터가 있었다. 그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반듯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피터는 인도네시아 브따위(Betawi)족 소녀와 결혼하여 알렛따(Aletta)라는 딸을 얻었다.

독일계 자바인이었으나 스스로 자바인이라고 생각했던 피터는 아시아계 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도네시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젊은 피터는 바타비아 주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항상 인도네시아인들 편에 섰다. 심지어 그는 동부 자바에서 VOC(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무역회사)에 맞서 싸웠던 노예 운통 수로빠띠(Untung Suropati)의 아들들

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게 빼앗긴 바타비아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반튼 (Banten)의 술탄과도 밀접한 관계였고 반튼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그러므로 피터는 차차 VOC(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1708년에 VOC는 피터가 소유한 수백 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했다. 이때도 인도네시아인들은 피터 편이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VOC는 여전히 독일계 주인의 땅을 차지할 것을 주장했다. Joan van Hoorn(1704~1709) 총독은 그를 석방하는 대신 피터에게 아주 많은 벌금을 VOC에 바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1721년에 또 VOC는 피터의 재산을 이유 없이 몰수했다. 그해 크리스마스 전야에 Pinangsia에 있는 중국인 소유의 폭죽 공장이 폭발하고 조선소가 불탔다. VOC는 이것이 피터의 소동이라고 의심했다.

당시 총독이었던 Henricus Zwaardecroon (1718~1725)는 피터가 살았던 포르투갈 교회 (Gereja Sion) 동쪽의 모든 땅을 가지려고 했다.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Zwaardecroon은 자신의 집과 정원을 팔고 싶지 않은 피터를 없애 버리고 싶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피터와 VOC를 더욱 긴장 관계로 유지하게 만든 반면, 인도네시아인들은 피터에게 일어난 사건에 큰 공감을 느끼고 같이 VOC에 분노했다. 피터는 현지인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후에 ‘찢어진 피부’ (Pecah Kulit) 마을로 알려진 지역인 그의 집에서 종종 모임을 가졌다. 그 만남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자바인과 함께 반란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네덜란드인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많았던 그는 반튼의 귀족 Raden Ateng Kartadriya(이하 Kartadriya, 까르따드리야)를 포함한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 23명과 함께 VOC에 대한 반란을 계획했다.

그는 봉기를 계획하면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살아남을 행운의 부적으로 작은 동판과 비밀자금을 나눠주었다.

1721년 말과 1722년 초 기간을 거사일로 잡았다. 까르따드리야는 Batavia 주변 시골을 다스리고, 피터는 도시의 수장인 Tuan Goesti(또한 구스띠, 인도네시아 왕조의 귀족들 작위/타이틀)가 되어 정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VOC의 횡포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부른 계획은 노예의 배신으로 총독에게 발각되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피터가 인도네시아를 위해 자신의 대의를 지지해달라고 반튼의 술탄에게 요청했는데, 술탄은 피터와 까르따드리야가 이후 큰 영향력을 미칠까 두려워 총독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1721년 12월 31일, 까르따드리야가 피터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이 새로운 사업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12명의 VOC 군인이 피터와 까르따드리야를 끌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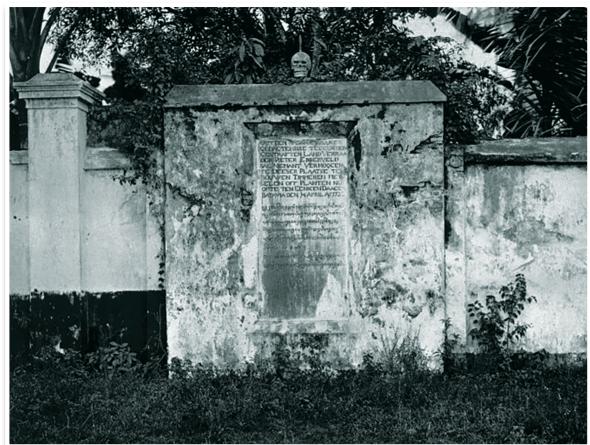
### 'Batavia의 검은 4월'

반란 혐의 피고인 23명(세 명은 여성)은 모두 비밀 재판을 받았다. VOC는 그가 자바인 왕족 까르따드리야와 함께 Batavia의 모든 네덜란드 주민을 죽일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다고 주장했다. VOC는 시청 남쪽 들판에서 피고인들의 등을 십자가에 묶고, 오른손을 자르고, 팔을 묶고, 다리와 가슴살을 도려낸 채 복역시켰다.

체포된 지 약 4개월 후 고위 공무원 위원회(Col-lage van Heemradeen Schepenen)는 Pieter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연히 여러 번의 잔인한 고문도 있었다. 1722년 4월 22일 VOC는 Pieter, Kartadriya, 인도네시아인 추종자들, 모두 23명을 보안상 시청(현 역사박물관) 앞의 공개 처형장이 아닌 성 남쪽의 Gallow 's Field라 불리는 곳에서 처형하였다. 처형된 자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다.

처형은 이례적이고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집행되

었다. 그들의 머리는 참수되었고 몸은 네 개의 기본 위치에 있던 네 마리의 말에 묶였다. 말을 끌어당기는 순간 몸과 피부는 네 방향으로 나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는 도시 밖의 어딘가에 있는 기둥에 꽂혔다. 시신은 새들의 먹이감이 되었다.



1885년경, Batavia의 Macaraeg (현: Jl. Jayakarta)에 있는 Piter Erbervelt에 대한 묘비 (출처: Tropenmuseum)

그들이 사지가 찢기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이 마을은 Pecah Kulit(찢어진 피부)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다. 마을 옆에 Ciliwung 강의 지류가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Kali Pecah Kulit(찢어진 피부 강) 또는 Kali Tangki(저항의 강)라고 불렀다.

처음 대량 처형이 있는 지 며칠 후 30명의 추종자들이 또다시 처형되었다. 처형은 피터의 집 근처인 Pecah Kulit 마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처형되기 전날 가족이 면회하는 전통이 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피터의 딸 알레따(Aletta)는 혼자서 아버지를 면회했다. 처형 당일에는 그의 아내와 딸이 함께 했다.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죄수는 교수대로 끌려갔다. 아내와 딸은 교수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땅에 무릎을 꿇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시 피터의 나이는 59세(혹은 62?)였다.

브따위 사람(자카르타 사람)들은 VOC의 잔혹함에 분노와 슬픔으로 치를 떨었지만, 피터를 영웅으로 기억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역사학자 헨디 조하리(Hendi Johari)는 저서 『Zaman Perang』(전쟁의 시대)에서 이 사건을 ‘Batavia의 검은 4월’로 표현했다.

## 허위가 어떻게 진실이 되는가?

피터와 까르따드리야에 대한 죄목은 대부분이 조작되었다. 피터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시청의 특별한 방에서 길고 매우 잔인한 고문을 당한 후에 허위로 자백했기 때문이다.

C.R. Boxer는 자신의 저서 『Jan Compagnie in War and Peace』에서 피터가 자바인을 부추겨 Batavia의 유럽인들을 학살하려 했다는 혐의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피터비문은 1722년 4월 14일에 세워졌다고 한다. Pieter 가 네 등분되어 살해당했던 날은 1722년 4월 22일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에 이미 비문이 세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법원이 VOC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모든 것이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야만적인 처형이 있은 지 200년 후, 네덜란드 역사가인 EC Godee Molsbergen(Godee)는 피터사건을 고문의 결과로 얻은 정치적 음모로 가득 찬 유혈 사건이라고 불렀다. Godee는 학식 있고 지적인 피터가 준비없이 갑자기 쿠데타를 계획하여 무모하게 행동 할리가 없으며, VOC의 경제적 탐욕과 정치적 음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VOC의 국가기록보관소 자료(1922-1937)에 따르면, 피터가 체포된 지 약 3주 후에 국가고위 관리위원회에서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피고인인 Pieter, Kartadriya 및 Layeek는 조사 과정에서 아무 반란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Kartadriya는 침묵했으나, Layeek는 고문에 못 이겨서 Pieter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실제로 그를 설득했고, 반란이 성공하면 Pieter는 왕이나 총독이 될 것이고 그의 지지자들은 반란에 참여한 각자에 따라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Layeek의 자백을 받은 검사는 Pieter와 Kartadriya에게 더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Pieter는 점점 더 심해지는 고문을 견딜 수 없어 마침내 Kartadriya가 자신을 부추겼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Pieter는 음모의 증거가 되는 문서는 그의 집의 찬장에 보관된 상자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반군인 Untung Suropati의 아들과도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Pieter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미친 듯한 어조로 Banten의 왕자 12명과 Cirebon의 왕자 13명, 귀족 3명 등 여러 가상의 이름을 언급했다. Pieter와 그의 친구들이 학살된 지 며칠 후에 VOC의 정치적 음모가 더욱 분명해졌다. 첫 정보를 받은 VOC 관계자인 Reykert Heere는 VOC에 보상을 요청했다. VOC는 그의 직급을 커미셔너에서 최고구매책임자로 올리고 월급을 100길더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의 깊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Pieter의 집에 있는 오래된 찬장에 있는 상자에서 한 글자의 편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Godee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록했다.

## Pieter 묘비는 어디로?

원래 그의 묘비는 포르투갈 교회(Gereja Sion) 부근의 JL. Pangeran Jayakarta에 2세기가 넘도록 있었다고 한다. 네덜란드인은 Pieter 살았던 곳에 ‘배신자 Pieter Erberveld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 콘크리트와 석고로 세워진 기념비 위에 경고의 표시로 Pieter의 머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서 비문 위에 올려 두었다.

일제 점령기 때에 네덜란드 식민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비문을 당시 일본군 사령부로 사용하던 현재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겼다. 그때 묘비 위의 해골은 손상되었다. 1970년에 JL. Pangeran Jayakarta에 창에 찔린 해골이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세웠다. 일본인 방문객조차도 기념비를 방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TOYOTA 자동차 쇼룸을 만들기 위해 이 복제품은 1986년 Tanah Abang에 있는 야외박물관인 묘비박물관(Taman Prasasti)으로 옮겨졌다.

거의 300년이 지난 지금 이 묘비는 여전히 견고하게 보인다. 다만, 세월이 훌러 옅은 흰색을 띠고 있다. 묘비박물관에 서 있는 기념비 바로 꼭대기에에는 창에 꽂힌 Pieter의 해골이 초록 잎들과 하늘을 배경으로 쳐연히 서 있다. 주위의 천사와 슬피 우는 여인상이 그를 위로하고 있는 듯했다.

역사는 흐르고 있다. 박물관 안뜰 비문에 있는 초록 잎은 오늘도 푸르다. 초록 잎은 변함없이 Pieter를 위로하고 있는 듯하고 화해의 상징 같기도 하다. 묘비 앞에 양 옆으로 서 있는 벽은 Pieter를 보호하는 것 같다. Pieter의 처참한 마음을 감싸고 싶어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마음 같다. 피터는 오늘도 말한다. ‘**내가 사랑한 인도네시아여. 더 이상 식민지배를 당하지 말고 영원히 평화롭기를, 초록 잎으로 다시 만나기를. 나의 갈갈이 찢어진 몸이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네덜란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Pieter는 오늘도 정의와 순결로 우뚝 서 있다. 저 비문처럼. 나는 가슴에 성호를 긋는다.

한때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설이 되어 좁은 골목골목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메아리 치고 있다.



1900-1918년 기간 중 Pieter Erbervelt 묘비(출처:  
Public Domain/National Museum of World Cultures)

#### 참고문헌:

- Historical Site of Jakarta :  
Adolf Heuken SJ (2007):  
자카르타 박물관노트 : 사공 경 (2005)  
<http://arsipindonesia.com/uncategorized/>  
april-hitam-di-batavia : Hendi Johari  
<https://news.detik.com/berita/d-5314621/>  
kampung-pecah-kulit-jakarta

## 땅그랑반튼한인회, 수낫딴 마살 행사 열어



땅그랑반튼한인회는 2022년 8월 28일(일), 수낫딴 마살 (SUNATAN MASSAL) 을 진행했다.

인도네사아에는 수낫딴 마살 ‘SUNATAN MASSAL’ 이라는 이슬람 종교의식이 있다.

수낫딴 마살은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이라고 한다. 현지 주민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비위생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다보니 각종 감염병 등 아이들의 위생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상이다.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 채만용)에서는 2010년이후 격년으로 저소득층 지역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비 일체를 지원하는 수낫딴 마살 행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행사를 올해 어렵사리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수낫딴 마살 행사는 한인동포들이 많이 오가는 땅그랑 피낭시아내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

회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지역 저소득층 아동 100여 명정도의 수술비는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및 임원들의 후원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수술비를 위한 기부금을 비롯한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땅그랑 시장, 군수 등 각 분야에서 땅그랑반튼한인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해 하며 한인동포의 이민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적극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 한인회에서는 이번 수낫딴 마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13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제공: 땅그랑반튼한인회)

## 살아있는 영웅

헬렌 하르소노(Heylen Harsono)

8월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77주년 독립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색 군복에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이나 독립영웅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도 영웅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9월호에서 한국 교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영웅은 정말 멋들어지게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동해변쪽 서해변쪽 병원을 다니는 글로리아 엘사(35세) 씨입니다.

엘사 씨는 ‘장례 전문’ 메이크업을 11년째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엘사 씨의 남편은 오래전 심장마비로 떠났는데, 당시 엘사 씨는 너무 젊은 나이였고 장례에 필요한 관을 지불할 돈도, 남편의 장례 메이크업을 맡길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엘사 씨는 장례가 끝나면 장례 전문 메이크업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인터넷에서 장례 메이크업을 독학하였습니다. 엘사 씨가 다니던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소개하니, 한 사람 두 사람 장례 메이크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일이 전혀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과 시외로 놀러가면, 장례 메이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마다 요구하는 사항도 달랐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올림머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바탁(batak) 종족의 요청 사항이 많았는데, 이를 테면, 손톱 매니큐어 색깔과 립스틱 색깔이 같은 색이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시체를 어떻게 염습을 하는지는 종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무슬림의 경우 시체를 목욕시킨 후 흰색 수의를 입힌 다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욕을 시킨 후에는 몸에 있는 7개의 구멍을 솜으로 막습니다(콧구멍, 입, 귀, 눈). 수의로 시체를 감쌀 때는 그 어떤 향도 뿐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고인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즉시 안장을 합니다. 기도후에 빨리 안장할수록 알라신의 곁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아닐 경우에는 수의가 아니라, 고인(故人)이 살아 생전에 가장 즐겨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양말과 신발도 신깁니다. 메이크업도 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고인이 어떤 질병으로 생을 다했는지에 따라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노르스름하기도 하며, 또 입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퀘매기도 합니다. 조문객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놀라지 않도록 예쁘게 단장해 주는 일이 엘사 씨의 뜻입니다.

메이크업 자격과 학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미스터리한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일을 마친 후 3개월간 비린내를 계속해서 맡았던 적도 있었는데, 출퇴근 전후에 소금으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소금은 액운을 떨쳐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엘사 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고인에게 3번 몸을 속여 인사합니다. 고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벼운 대화도 나눕니다.

아무래도 ‘장례 메이크업’이라는 일이 인기가 많은 직업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수입은 꽤 높은 편입니다. 엘사 씨는 장례 메이크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가끔 일반 회사원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피부의 모공이 닫히고 기름기는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메이크업 재료와는 조금 진한 재료를 쓰니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한번 터치를 잘못하면 지우기도 어려워서 세심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엘사 씨는 고인의 가족에게 참고할 만한 가장 좋은 사진을 받아둡니다. 메이크업과 네일,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잘 어울리게 만듭니다. 메이크업 준비물이 얼마나 많은지 해외 여행을 가는 것처럼 기내용 가방 같은 큰 가방을 어딜 가나 끌고 다닙니다.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살아 있는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번역: 민선희)

## 슬픔에 대한 단상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jinn.kim@outlook.com



우리 민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리워 운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울음이라는 것은 곧 슬픔이요, 슬프면 울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를 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운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만리”

“귀뚜라미 우는 달밤”

한여름엔 매미도 울고, 들판엔 음매하고 송아지가 운다 등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운다고 하기보다 목청껏 노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픔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듯 노랫말의 흐름조차 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슬픔을 유도하는 것일까?

이어령 선생은 그 이유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사 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대륙의 도도한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의 운신을 복종과 굴욕으로 토착시키는데 한 몫 하였다. 수 천 년 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겪는 고통의 울분이 사슬이 되어 그토록 슬픔에 익숙해진 탓일까? 끊이지 않는 수탈과 조공의 역사 속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금쪽같은 아들은 전쟁터로 예쁜 딸은 공녀로 팔려 나갈 때의 아픔! 있는 그대로 우리의 한반도 역사는 한줄기 슬픔의 대 서사시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민초들이 불러대는 이름 없는 민요의 가락을 보면 울음 섞인 일정한 음률이 반복으로 흐르는가 하면 이야기책을 읽을 때도 경을 외듯 서럽게 흥얼댄다. 우리의 전통 국악인 판소리는 흡사 장례 문화의 곡소리를 닮은 듯하다. 판소리는 한이 담긴 쉰 목소리로 끊긴 듯 이은 듯 흐느끼며 불러야 감칠맛이 난다고 한다.



목구멍이 찢어져 쉰 소리(허스키)가 나올 때 비로소 득음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니 소리꾼의 고초가 어떠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뿐인가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온 동네가 떠나갈듯이 울어야 하고 울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곡을 해야 한다. 상주가 지쳐서 쉬고 있으면 나이든 집안 어른은 어서 곡 하라며 보채기도 한다. 상주는 그렇게 온종일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해야 한다.

영화 장면을 보면 외국의 장례식은 조용히 서서 기도를 하거나 뒤로 돌아서서 손수건으로 눈 주위를 꾹꾹 누를 뿐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희극보다 비극을 좋아하고 사랑을 담은 노래도 비극적 스토리를 좋아한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지루하리 만큼 길게 우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된다. 글을 쓰는 작가나 감독들도 슬픔 혹은 눈물이라는 이야기거리를 주된 소재로 설정함으로서 시청자의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늘 밝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헬로” 라며 가볍게 인사하는 게 보통의 일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무표정하고 불친절한 모습은 해외에서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연 재해 등으로 오갈 데 없이 고통 받는 이재민이 인터뷰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컥하며 눈물부터 보이는 장면이 종종 나타난다. 자연 재해를 가장 많이 겪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들은 화산재로 집과 가족을 잃고도 그토록 땅을 치며 우는 장면을 볼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자연재해 앞에 초연한 국민성을 엿볼 수 있다. 자카르타 근교의 어느 침수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이 의아해서 ‘내년에 침수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관없다고 했다. 까짓 일 년에 한번인데 가벼운 것은 지붕에 올려놓고 침대는 나중에 햇볕에 말리면 그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슬픔을 동반하지 않는 삶이 존재 할까? 빈약한 살림도구에 빈곤과 가난이 일상이지만 분노하지 않고 슬픔을 기쁨으로 풀어내는 그들만의 방식이 우리와 크게 대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세 남매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지침서

보조작가: 이상민(JIMS 11학년)

### 세 남매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지침서

이애경 님의 <인생을 위한 여행>



#### 최선을 다했을 때 더욱 빛나는 시간



아버지는 엄격하셨지만 어머니는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결혼하기 전까지 구미에 머물렀는데 오빠와 대판 싸운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왜일까. 두 살 터울 오빠와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 도끼 눈을 뜯 할머니가 빗자루

를 들고 쓸아와서 오빠와 나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작은 전쟁’은 끝이 났어. 똑같이 할머니에게 맞으니 ‘동지애’ 까지 생기더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사소한 것들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고양이와 개처럼 싸우던 시절이 유독 기억에 남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이애경은 고집도 세고 지기 싫어했지만,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아이였던 것 같아. 엄마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과목은 미술이야.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나를 부르셨어.

“애경아,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배워 보는 게 어떻겠니?” 뜻하지 않은 제안에 당황했지만 나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단다. 자존심을 구겼다는 말이 있지? 누군가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비참해질 때 쓰는 말이야. 반대로 인생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자존심은 풀을 먹이듯 빤빤해진단다. 자신감에 가슴이 활짝 펴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무척 중요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거라.

대학 졸업 후,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사회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꺼이 도왔단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 나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구나. 기억하거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가장 열심히 사는 그 순간이 너희들이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삶의 진리를!

### 현명한 결혼 생활

처녀 시절에 딱히 큰 고민은 없었던단다. 단 하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켰어.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가 아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엄마는 한국에 있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건실한 청년이 있다며 엄마에게 아빠를 소개시켜 주시더구나. 아빠가 해외에 있다 보니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고, 전자 우편을 통해 교류를 시작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한국의 구미에 오겠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를 기다렸어. 버스가 멈출 때마다 고개를 빼고 아빠를 찾았지만 번번이 보이지 않았어. 잠시 뒤,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사진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두리번대며 나를 찾는 남자를 보니 웬지 모를 안쓰러움이 느껴졌어.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비행기로 7시간 30분이나 떨어진 인도네시아에서 엄마를 만나러 온 남자라 생각하니 뭉클하더라. 웬지 내가 이 남자의 인생에 있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인지, 처음 만난 사인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오래된 연인처럼 우리는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었어. 경상도 남자들의 거친 사투리에만 익숙해져 있던 내게 서울사람의 표준어 발음과 부드러운 말투가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어느 정도 구미에서 함께 지내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단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필수품은 ‘오래 참

는 것’ 이란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지. 부모는 아이들을 보며 참고 버티지. 공자님 말씀에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듯 결혼생활에서 ‘인내심 세 번이면 이혼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 인내한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잖니? 결혼으로 나는 책임감 있고 단단해졌다.

###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엄마’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은 나에게 오롯이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서 무척 힘들어 한단다. 나 역시 그랬어. 특별히 남다른 육아방법은 없었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너희들을 양육했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 너희들에게도 ‘기독교적 신앙심’과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품’을 가르치며 키우려 노력했단다. 너희들이 아기였을 때는 온통 육아에만 몰두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속상하기도 했어. 나도 좋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싶었지만, 너희들을 돌보며 그런 여유를 부릴 수는 없었던단다. 아니, 아예 여유가 생기지 않았지. 엄마란 내가 생각하던 귀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내 아이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쓸 줄 아는 존재야. 사람들이 말하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이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다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한 영원불변의 진리로 통할 거야. 내가 힘들 때마다 전화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할머니의 다독임이 육아를 하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었어.





아이들은 왜 하필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곁에 없을 때 아픈 건지, 왜 하필 아이의 첫 옹알이와 처음으로 혼자 순가락질을 해 밥을 먹는 가슴 벅찬 순간에 남편은 곁에 없는 건지… 생각해 보면 나는 너희들이 커가는 예쁜 모습을 눈과 마음에 담았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어. 가족을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힘든 데도 웃어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너희들이 ‘책임감’과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귀한 원석을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 나이가 들며 보이는 것들

인도네시아 시내의 외곽에서 살 때,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Peukanbaru에 살 때에는 샤워 하는 물에서 실지렁이까지 나왔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짐을 쌌는데 너희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더라. 환경이 적응이 안되어 짐 가방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내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구나.

나이가 들며 어린 시절의 꿈은 희미해졌단다. 이제는 나의 꿈보다 너희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목표이자 꿈이 되었어. 요즘 엄마는 막내를 보며 많이 웃어. 물론 어느 순간부터 나의 키를 훌쩍 넘어서 덩치가 커진 아들 둘은 힘들하기 그지 없지. 이제는 다른 자식들과 말씨름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게 힘들지만, 애교를 부리는 딸과 든든한 아들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단다.

### 사랑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공동체, 가족

나는 가족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공동체’로 정의하련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

이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가족 안에서는 모두 덮어진단다. 가끔 기분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상처로 남지 않을 유일한 상대가 바로 가족이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너희들을 출산했을 때란다. 하지만 너희가 자라며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네. 웬만하면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랄까?

잊지 않으려 노력할게. 너희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 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주지와 학교를 계속 옮

겼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특한 내 아이들! 특히 상민이는 학교를 여덟 번 이상 옮겼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어디를 가나 잘 적응해 주어 대견하고 자랑스럽단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적응하며 자기만의 길을 닦아나갈 거라 믿는단다.



### 햇살의 말씀 같은 어머니의 조언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거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단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렴. 취미생활과 운동,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은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란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거라. 일주일 뒤, 다시 월요일이 오지만 다시 올 월요일은 지나간 월요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너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단다. 그러니 ‘지금, 이순간’을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거라.

# “인도네시아서 코로나 덕에 한국식품 소비 더 인기”

aT, ‘족자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운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를 접한 인도네시아 10~20대의 한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겁다”며 “팬데믹 기간에 떡볶이로 대표되는 K-분식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지난 8월 5일부터 나흘간 자바섬 중남부 족자(족자카르타)에서 열린 ‘족자 국제식품박람회’ (Jogja International Food & Hospitality Expo) 현장에서 조성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카르타 지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조 지사장은 “이번 식품박람회의 한국관에는 aT 홍보관과 9개 한국식품 수입업체가 참여했다”며 “건강식품인 홍삼류와 가정간편식인 만두와 떡볶이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며 “팬데믹 기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도네시아인이 급증해 반려동물용 사료도 판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으로는 단연 떡볶이를 꼽을 수 있다. 떡볶이의 맵고 짜고 단맛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입맛에 잘 맞으며, 떡과 유사한 음식(론뚱)이 있어 식감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족자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교육의 도시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공부하기 위해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한류 열풍이 거센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aT는 족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식품의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aT 자카르타지사는 그동안 자카르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한국식품 판촉과 박람회 참가, 소비자 체험을 통한 한국식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해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김치볶음밥 조리시연 및 맛보기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른쪽) 조성덕 지사장





## 할까? 말까? 할 땐 해보는 것!

글: 권영경

아] 이들의 빅 이벤트! 길었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주부의 삶이 늘 그러하듯 한국을 다녀왔든 아니든 긴 방학과 연휴의 끝은 언제나 청소다.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기까진 집을 비워 둔 딱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채워지는 쓰레기봉투만큼 마음이 무겁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무게를 채고 버리는 한국 시스템을 맛보고 온 직후라 그런지 마음의 무게도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쌓여간다.

6년 전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땐 30년 넘게 한국에 살며 몸에 베인 분리수거 습관 덕분에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부지런히 분리수거를 했다. 유리는 유리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음식물은 음식물끼리. 하지만 가끔 분리해 놓아 둔 쓰레기들은 한 트럭에 죄다 한꺼번에 던져졌다. 그 장면을 6년째 목격하고 있지만 모든 쓰레기를 한 봉투 안에 버리는 일은 여전히 자신이 없어 오늘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 결국 모든 쓰레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죄다 합쳐진다 해도 말이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라이프’를 향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자원들을 순환시켜 낭비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인이 최근 직접 써 보고 너무 좋다면서 추천해 준 열매가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자마자 1키로그램을 구매했다. 바로 무환자나무에서 나는 일명 비누열매, ‘soup berry(솝 베리)’다.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전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옛날엔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그 집 아이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하여 많이 심겨졌고 열매로 염주를 만들거나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다 한다. 귀신을 물리친다 해서 이 나무로 만든 그릇도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물론 그 시절에도 세탁세제로 사용되었다.



### 이렇게 사용해요.

열매 껌질엔 계면활성제 성분인 사포닌이 가득해 정말로 세탁효과가 있다. 신기하게도 열매를 씻으려고 물을 들어 보면 거품이 엄청나게 생긴다. 열매 6~7알을 작은망에 담아 세탁기에 넣어 돌리면 세탁세제를 따로 넣지 않아도 표백, 세탁이 가능하다. 물론 섬유유연제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유리병에 열매 5알정도 넣어 마구 흔들면 거품이 가득 나는데 이는 하루 동안 살거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열매 15알을 1리터 물에 넣어 끓이면 좀 더 진한 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따로 병에 두어 일주일 정도 두고 써도 무방하다.

베리류의 열매이기 때문에 대추에서 나는 시큼한 향이 난다. 그 향이 다소 어색할 순 있지만 보통 건조 후엔 다 날아가 무향이 된다. 무엇보다 과일을 씻을 때, 컵을 씻을 때, 속옷을 빨 때 잔여 세제가 남을 걱정이 없다. 화학 잔류물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용한 열매는 퇴비로(몇 번 사용한 껌질을 화분에 올려 두면 서서히 바스러져 흙으로 돌아간다) 사용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해한 자연의 선물이다.



사용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다소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만드는데 20초,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용기를 쓰레기봉투 가득 채워 버리며 자꾸만 죄책감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저 궁금해서! 한번쯤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또한 (환경을 위한 거창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재미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나는 무조건 하는 편이다. 후회할 때도 있고 만족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 봤다는 ‘경험치’ 하나로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든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나와 같은 마음일게 틀림없다.

귀찮지만 역시 해보길 잘했다고!

## 111가지 물건과 모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롭 그린필드(Rob Greenfield)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16가지 방법

1. 줄여라
2. 다시 사용해라
3. 재활용하라.
4. 고쳐써라.
5. 거절하라.
6. 퇴비로 만들어라.
7. 일회용 제품은 거절하라.
8.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사라.

9. 자신만의 물건을 챙겨라.
10. 리필하라.
11. 스스로 만들어라.
12. 중고제품을 사라.
13. 질 좋은 물건을 사라.
14. 물건을 소중히 다뤄라.
15. 매사에 감사하라.
16. 배출되는 쓰레기를 모니터링 해 보자.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항목은 16번이다.  
당신이 어떤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을  
멈추는 방법 또한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지회,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초청 특별 강연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지회(지회장 이세호)가 8월 26일 코린도 강당에서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성 김 대사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6자 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 특사, 제22대 주한 미국 대사, 제31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제21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와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이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중에 감정이 북받친 자문위원이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세호 지회장은 김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에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김 대사가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 편, 이 날 강연회에는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 회장을 비롯하여, 송창근 전 민주평통 아태지역 부의장, 김우재 전 민주평통 상임위원, 승범수 코린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하고, 민주평통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들로 강연회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제공: 민주평통 인니지회)



이세호 회장과 성 김 대사

중부자바 한인회  
소식

## 77주년 한·인니 광복절 기념 음악회



**중**부자바 한인회(회장 채 환)는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스마랑 문화센터(RAD-JAWALI)에서 77주년 한·인니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가졌다.

주요 인사로는 중부자바 주지사(GANJAR PRANOWO)와 투자청장 및 이민국, 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우리 한인 70여명, 현지 일반인 200여명이 관람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박태성 대사의 축하동영상을 보내왔다.

중부자바 주지사는 중부자바에서 독립 콘서트를 아름다운 행사라고 축하하였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역사는 유사점이 있다며 “두 나라의 독립에 이르게 된 시기에 대한 깊은 영상에서도 드러나 있고, 광복절 즉, ‘빛의 날’ 회복이라는 매우 특별한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국간의 정치, 비즈니스, 교육, 예술 등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협력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협력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태성 대사는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하고 소통하는 창”이라며. “이 음악회를 통해서 중부자바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나라와 언어는 다르더라도 이웃 주민이자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정을 더욱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부자바 한인 동포들을 친구로 맞아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중부자바 주정부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중부자바 한인회 제9대 채 환 회장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36년동안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지가 77년이 되었다. 77년전 같은 아픔을 겪고 인도네시아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아픈 역사를 같이 극복하고, 앞으로 같이 성장해야 할 친구이다. 이 음악회가 양국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복의 기쁨을 한국 노래와 인니 노래로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드높이는데 충분했고, 우리는 하나라는 테마로 인니 가수가 한국 노래인 ‘꽃밭에서’ (정훈희)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이선희), ‘만남’ (노사연), ‘아리랑’ 등 고성

과 저음을 넘나들면서 관객들에게 조국을 생각하는 감정을 승화시키며 감동을 전달하였다. 또한 ‘독도는 우리땅’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현지 댄스가수가 플래시몹으로 율동과 열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땅을 꼭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섰다.

전체적으로 음악 감독과 쉽지 않은 한달 반이란 짧은 시간을 짜임새 있게 마무리 한 스마랑 한인 교회 윤성득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악총괄 감독을 맡아 주신 대영 텍스타일 이경선 상무님께서는 업무상 바쁘신 출장 중에도 각종 포스트, 마스크 인쇄까지 때론 연출가로, 때론 출연진 가수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뒤에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연진 점심 도시락과 저녁에 출연진 식사, 관객들 330개의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하고 후원하신 인도네시아 스마랑 한인교회 조현미 님과 박용구 님, 한국식당 고향집 백순심 님에게도 머리 숙여 답례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에 차질 없게 묵묵히 책임을 다한 중부자바 한인회 운영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20일.

중부자바 한인회 제9대 운영진

(제공: 중부자바 한인회)



누렁이,  
흰둥이,  
깐돌아~~

이대로 아빠와 함께 사이좋게 살자꾸나!

성기체 집사

### 페티즈 (Pettise) 발성법

엄마가 아기에게 ‘높은 톤으로 억양을 넣어서 천천히’ 말하는 방식을 마더리즈 (motherese)라고 하는데, 페티즈는 마더리즈의 고양이 버전이다.

‘놓은 톤과 크지 않은 목소리로 짧은 문장을 반복한다’ 가 요령이다. 우아한 고양이에게 천천히 움직이고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는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강제로 안는 것이다. 단독생활을 하는 고양이에게는 무리내에서 요구되는 서열이나 질서, 인내심 등의 개념이 없다. 밥이나 간식을 주거나 놀아주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다가가야 한다.



고양이는 복종시키려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개는 부르면 바로 오지만 고양이는 메시지만 받고 나중에 오고 싶을 때 온다. 고양이는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개처럼 반려인을 리더로 인식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칭찬받고자하는 의식이 없다. 고양이의 행동을 고치려면 큰 목소리로 애단쳐서 그 행동에 스스로 불쾌감을 느껴야 한다, 고양이는 낮고 큰소리를 두려워 한다.



# 도전하니 청춘이다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2년 7월 1일~ 9월 3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inewsinni@gmail.com](mailto:hai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 ● 의약품 개발 공정 과정, 그 일부분을 알아보자 ●

글: 조웅희 (학생기자 JIS 11)

2022년 6월 29일,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 (GBP510)가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으며 국내 백신 개발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물량은 8월 말부터 공급이 이뤄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산업은 나날이 발전해나가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 위주의 레드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이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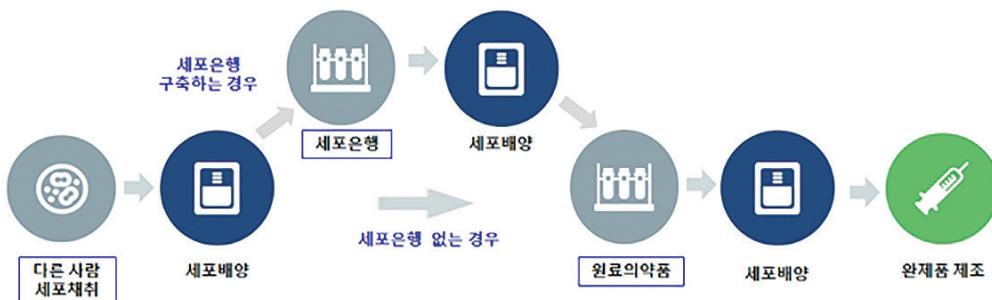
의약품은 분자 타입에 따라 크게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합성 의약품은 화학적 합성반응을 통해 생산하는 저분자량의 의약품으로 대부분 특정 환자군을 타깃하지 않고 다수의 환자군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두통약, 고혈압약 등의 정제 의약품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 혹은 다른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고 세포 배양 등의 생물공정으로 생산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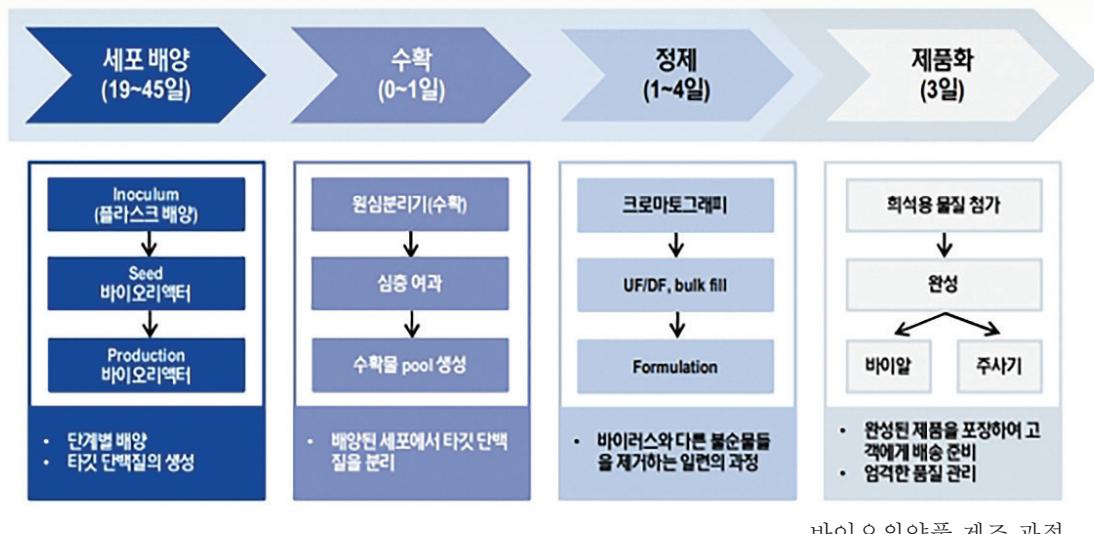
분자량의 의약품으로, 인슐린과 같은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백신, 항체 의약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중 GBP510 백신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유전공학, 항체기술 등을 기반으로 특정 환자군을 타깃으로 효과적인 것과 동시에 부작용이 적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오 의약품의 중심인 세포 배양과 생물 공정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 여름방학 동안 참여한 의약품 세포 개발 및 품질관리 인턴십을 통해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었다.

세포 생산 공정 과정은 크게 4가지: 세포주 개발, 배양공정, 정제공정, 완제품 공정으로 나뉜다.

먼저 세포주 개발은 특정 세포가 치료에 필요한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무한 증식 세포인 세포주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과정

이 과정에서 쥐 골수암이나 암컷 햄스터의 난소를 바이러스 전달체와 결합해 재조합 DNA로 만든 후 다시 숙주 세포 안으로 삽입이 된다. 그 후 숙주 세포가 새로 주입된 DNA를 토대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 후 만들어진 세포주를 담은 효소를 점차 줄이며 소량의 효소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를 걸러내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세포주들은 생존 가능성 향상뿐만 아니라 세포주 생산성 (antibody production) 또한 향상된다. 이후 안전성 검사가 종료되면 최종 세포주가 선정된다.

그다음으로 배양공정은 선정된 세포주가 성장과 분열해 의약품의 원료인 항체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제약기업에서는 10,000L 정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가식 (Fed bioreactor) 배양기를 사용하고 그 안에 세포 성장을 위한 영양분, ‘미디어’를 추가한 후 그 뒤 성장과 분열을 한 세포 혹은 단백질을 안전하게 추출하기 위해 ‘버퍼’가 사용된다. 이때 배양 공정에서 필요한 조건으로는 산성도, 온도, 삼투압, 산소량 등이 해당 세포주 맞춤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세포주 개발은 씨앗을 묘목까지 키우는 단계고 배양공정은 묘목을 큰 나무로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쉽다.

배양공정이 완료되면 정제 공정을 하기 전에 산업용 연속원심분리기 (continuous centrifuge)에 배양기 내용물을 넣어서 무거운 찌꺼기나 DNA 성분은 바닥에 가라앉고 나머지 버퍼와 배양된 항체는 상층부로 이동하여 정제공정을 시작한다. 분리된 버퍼와 항체는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의 흡착제를 통해 항체가 불순물과 분리된다. 대한민국 대기업 제약회사 ‘셀트리온’은 약 90%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후 원료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해서 농도를 맞추고 기존 버퍼를 걸러낸 후 항체로 농축된 용액에 주사제용 버퍼를 지속해서 추가하여 산성도와 세균을 조절해 준다. 여과 공정을 통해 남은 세균을 걸러내면 불순물이 없는 주사제용 항체만이 남는다.

이제 제조된 주사제 항체는 열려진 후 포장되어 완제 의약품이 완성된다.

평소에도 의약품에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인턴십 (제약/바이오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 하는 품질관리 직무 완벽 이해 인턴십)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들에 들어가는 수많은 과정을 일부분이라도 이해하고 되었고 의약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바이오산업 전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분쟁 해결 방법(1)

### 1. 계약의 적법조건

계약은 법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제도에서 계약의 적법조건은 민법 제13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32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조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 1.1.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i).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ii).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 표시 방법이 있다.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 1.2. 계약체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

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라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 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 1.3. 계약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계약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표현하며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 1.4.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마약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매계약, 부도덕한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데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계약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 2. 계약법의 원칙

### 2.1.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 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계약)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2.2.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 2.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

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 2.4. 구속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 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시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시킬 수 있다.

### 2.5.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색깔, 종교, 사회적인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유에 관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분양업체와 소비자 간, Project Owner와 Contractor 간, 여하한 관계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다.

### 2.6. 형평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 만성질환자를 위한 해외 비대면진료 서비스



## 1 한국 사람은 한국 의사에게! 제대로 상담받고 치료받으세요!

- 인종이나 유전자가 다른 타국의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 우수기관 선정, 고혈압·당뇨 국내 최고의 명의에게 진료 받아보세요.



## 2 검사 데이터를 나만의 주치의와 함께 관리해보세요!

- 혈압·혈당 수치를 평생 누적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해 식습관까지 개선하세요.
- 환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연동하여,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받으세요.



## 3 만성질환, 이젠 혼자 말고 웰체크와 함께 하세요!

- 수치가 들쑥 날쑥 하고, 높게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웰체크로 상담 받으세요.
- 환자의 상태, 복약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가족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Special Event

## 웰체크 비대면 진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

자가혈당측정기 리브레를  
무료로 증정드립니다.

FreeStyle Libre

혈당 측정 바늘로 죽? NO!  
이젠 간단하게 터치하세요!



웰체크 APP

다운로드 받으러가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웰체크 비대면 진료  
상담 받으러가기

오픈채팅방 ID: lastdragon



# 이동준 자카르타 무역지원 센터장,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방문

8월 29일, 이동준 자카르타 무역지원센터장이 재인도네시아한인회를 방문하며 박재한 한인회장, 김종현 수석부회장과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센터장은 한국의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에 무역지원 센터 설립 후 계획과 9월 2일에 있을 개소식을 전했다.



Medalist-김종현



홀인원: 양영연



Winner: A. 장윤하



Winner: B. 김윤기



1st Runner Up:  
A. 강호성  
B. 서광호



김우재 고문 색소폰 연주



Winner : 박미희



2nd Runner Up:  
A. 이근대  
B. 심태용



감사패 :(좌로부터) 손한평, 김종현, 채영애 수석부회장





##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

글: 흥석영 편집장

별써 가을의 중심 추석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명절을 쟁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 르바란이 나의 명절이 아니듯, 이곳에서 그 분위기를 낼 수 없고 가족과 떨어진 외국에서 맞는 명절은 거리만큼이나 나와 떨어져 있다. 장점이 있다면 멀리 산다는 것이 명절을 맞이하는 관계의 성가심과 피로감을 피해 갈 구실이 돼 준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에 갑작스런 부기로 한국을 다녀왔다. 아침에 돌아가셔서 다음 날 아침에는 장례식에 합류할 수 있었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끼따스 수속 중이라 여권이 이민청에 뚫여 있어서 주말인데 영사과의 도움을 받아 긴급요청을 해서 어렵게 여권을 들고 그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나를 증명해야 하는 동포의 삶은 인생의 변곡점에서 빛을 발한다.

예로부터 역병이 돌던 시기에는 외부인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견디기 위한 분출이 필요했다. 어느 영화에서인가 역병이 돌면서 지붕위로 다니는 이방인의 지난한 일과를 본 적이 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기 전 PCR이나 안티겐 음성결과서를 제출하고 도착하자마자 또 PCR 검사를 하며 내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백신을 맞기 위한 출서기를 할 때, 한국이 이곳보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낫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모국은 우릴 챙길 여력이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면서 우린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있기가 힘들었다.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삶의 스토리를 엮어가려면 어떤 장면에서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과 입을 다물어야하는 사람, 누군가와 싫든 좋든 대화를 해야 하고 처음인 양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책임과 도리를 해내야 지분에 걸맞은 당당함을 장착할 수 있는 집안 대소사.

삶의 터전이 한국이 아니었기에 암묵적으로 배제되기도 하고 처지를 배려받기도 했다. 그동안 관계에 소홀했음에 스스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나 없이 벌어진 그간의 일에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각종 관계의 에피소드를 몰아 들으며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는 여유로움도 가능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적어도 조연이나 액스트라를 해내야 했던 그 때 그 일.

시대적 상상의 질서가 작용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잘하는 방법 중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가 인간을 지배하는 현재는 선물이나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에서 부자 남편은 부인



에게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다. 아내를 생각한다면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름이건 가족이건 무언가를 남기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사람이 좋게 보는 것에 목을 맬 필요가 있을까?

언제인가부터 아버지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별 화제 없이 대화를 주고받는지 오래라서 ‘아버지는 나에 대해 알고 가셨을까?’ , ‘나는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심한 사과’에 심심하다니! 하면서 공지문에 화를 표출한 트위터에서의 공방이 얼마 전 논란이 됐다. ‘지루하다’는 ‘심심’이 아닌,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이라며 짊은 세대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미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번역기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한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 누군가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은 품성과 품위 계발의 도구를 얻는 것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말할 수도 있으나, 세대 간의 대화는 어휘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다. 끝이 좋으려면 ‘누가 접어주느냐?’의 도식이 존재한다.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는 생각 때문에 노인들은 쉽게 화가 난다고 했다. 또 이러네... 쌍인 게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다. 나는 디지털 기기 약자가 되면서 국경을 넘으면 또 다른 세상에 접속해야하기에 계정과 비밀번호 기재에 에너지가 소진된다. 일본이 공적인 매뉴얼을 시대의 속도를 위해 디지털화나 간소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이해가 잘 안되지만, 지난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른을 사회가 그만큼 오래 품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마음이 좋았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싶다.

생전에 책이 많았던 어느 돌아가신 분의 서가에서 그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보면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두었는지, 누군가가 보아주고 알아주기를 바랐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과연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서재에서 날 생각할 것인가?

아버지의 장례식은 러셀 데이비스의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깊이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다.

# 2022 임원잔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8.26.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3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5,000	
4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8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9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10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1	부회장	강영균	PT. HELMINDO UTAMA	5,000	
12	부회장	김창곤	PT. KODECO ENERGY CO. LTD	5,000	
13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4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5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6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7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8	부회장	이정희	PT. GEE SAN INDONESIA	5,000	
19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0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1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2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3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24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5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6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7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28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29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30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1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2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33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34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35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3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7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38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39	이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000	
40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41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42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000	
43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4	이사	김삼두	PT. CIPTA KREASI NADA	1,000	
45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46	이사	김종규	PT. ELIM TECH	1,000	
47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48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49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50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51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52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53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54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55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56	이사	방진학	PT. HANSUNG INDOTAMA WORLD	1,000	
57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58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59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60	이사	신성철	PT. DAILY INDONESIA	1,000	
61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62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63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SYATAMA	1,000	
64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65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66	이사	이명균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000	
67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68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1,000	
69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70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71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	
72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73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74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75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76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1,000	

## 2022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번호	성명	금액(IDR)
1328	김삼두	300,000
1329	김영주	300,000
1330	최태립	300,000
1331	이근대	300,000
1332	노예범	300,000
1333	방진학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34	이명균	300,000
1335	조셉김	300,000
1336	이지선	500,000
1337	신성철	300,000
1338	이현상	300,000
1339	김창곤	300,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신고** 110

**소방서** FIRE BRIGADE 113  
(화재신고) (Dinas kebakaran)

**응급차** AMBULANCE 118  
(Ambulan) 119

**민간구급차** PRIVATE (02)7506001  
서비스 AMBULANCE =International SOS  
SERVICE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2967 2555

영사과.....02)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521 2180  
(터미널3).....02)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5031 1030  
(공항).....02)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5798 6555

##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b>● 주요기관</b>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한국대사관	2967 2555			심스골프	570 3063
영사관	2967 2580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주발리분관	361)445 5037	Hansol Kids	765 6588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Brain School	7179 4787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Patra Kuningan)	8378 3783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사랑	835 1540	<b>● 골프샵</b>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성모	7884 2467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하나	844 5283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레네세계골프	739 83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끌라빠가딩)	471 8047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땅그랑)	558 7227	EFC Golf	725 005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b>● 한인단체</b>				MFS골프	725 0057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b>● 골프장</b>		Play Golf	722 9587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BOGOR RAYA	0251)827 1888	월드	552 7434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CENGKARENG	5591 1111	Bridgestone Golf	7279 812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CILANGKAP	8459 5687	Love Green Halim	8778 2771~2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CIKAMPEK	0264)317 007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DAMAI INDAH [BSD]	537 0290		
<b>● 한인잡지</b>		EMERALDA	875 9019	<b>● 은행</b>	
한인뉴스	521 2515	GADING RAYA	546 7668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교민세계	739 9025	GUNUNG GEULIS	0251)825 7500	수출입은행	525 7261
여명	9955 5859	HALIM 1	800 5762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HALIM 2	809 0729	우리소다은행 본점	2995 1915
<b>● 교육기관</b>		IMPERIAL	546 0120	신한은행	2975 1500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JABABEKA	893 6148		
꿈나무학교	5579 4407	JAGORAWI	875 3810	<b>● 가구</b>	
간디국제학교	690 9902	KAPUK	588 2388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KARAWANG	0267)405 888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KEDATON	5930 000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끌라빠가딩)	460 8888	KEMAYORAN	654 1156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KRAKATAU	0254)372 030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LIDO	0251)822 1008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MATOA	787 0864	<b>● 건강식품/건강원</b>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MODERN	552 9228	경동건강원	7028 4262
일본학교 (JJS)	745 4130	PALM HILL	8795 4307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PANGKALAN JATI	751 3326	한국건강원	5579 6411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PERMATA SENTUL	8795 1787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PONDOK CABE	740 5385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SPH (땅그랑)	546 0234	PONDOK INDAH	769 4906		
(찌까랑)	897 2786	RAINBOW HILL	0251)827 2111	<b>● 국제전화 서비스</b>	
RICS	7590 3342	RANCAMAYA	0251)824 2282	글로벌링	725 1606
해리티지인터넷셔널 (HIS)	0812 971 2306	RAWAMANGUN	475 4732	넥스텔링크	525 3187
LYCEE Int. FRANCAIS	750 3062	ROVER SIDE	867 1533	데이콤	720 7551
JIPS	3004 2885	ROYAL JAKARTA	8088 4488	킹폰	574 0888
JIMS	744 4860	SAWANGAN BARU	740 2194	현대 텔레콤	5579 1226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SEDANA	0267)644 730		
ACG 국제학교	780 5636	SENTUL HIGHLAND	8796 0266	<b>● 건설 / 설비 전기</b>	
ICSCE	780 7313	TAKARA	599 1227	DASOM Indonesia	2940 3042/5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Sinarmas World Academy(SWA)		<b>● 골프교습</b>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Easy Golf	801 2048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밸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이드와		507	2077

##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방부동산	08111	555 615

#### ● 밤술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벽화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이리따운 희곡 / 편집권 725 3458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람)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트점	024-7640	4783

무궁화 밤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쁜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 시다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 DOOWANG 과 함께 가면 면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조Dam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감집	723 3315	태능갈비	7055 0888
대화	720 6091	테라스 가든	8493 9321
락	5793 9211	한마당	5577 6770
마포	7279 2479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산정 찌까랑	2909 3000
명가면옥	0254-849 3571	산정 까북	3005 1650
면의전설	521 0230	유기네	2221 3392
명가면옥	2751 0800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미가	0818 85 8026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리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

H2 Stuff	4586	7860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OSSelnajaya(세르나자야)	0804 1807 807
Living A&I		7278 0704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공항지점)	8082 2291~2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싱가폴 항공	570 4411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b>● 운송 해운 이삿짐</b>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콤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b>● 자동차 정비소</b>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b>● 증권/보험</b>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리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리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b>● 컨설팅</b>				
오톰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b>● 인재채용</b>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b>● 컴퓨터, IT</b>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b>● 택시</b>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b>● 하숙</b>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훔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b>● 학원/교육업</b>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b>● 항공</b>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b>● 호텔</b>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풀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b>● 환전</b>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b>반동 (지역번호 022)</b>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b>● 식당</b>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b>● 서비스업</b>				
뉴캐슬사무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 ● 종교 단체

###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b>&lt;불교&gt;</b>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b>&lt;이슬람&gt;</b>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동문회

###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규)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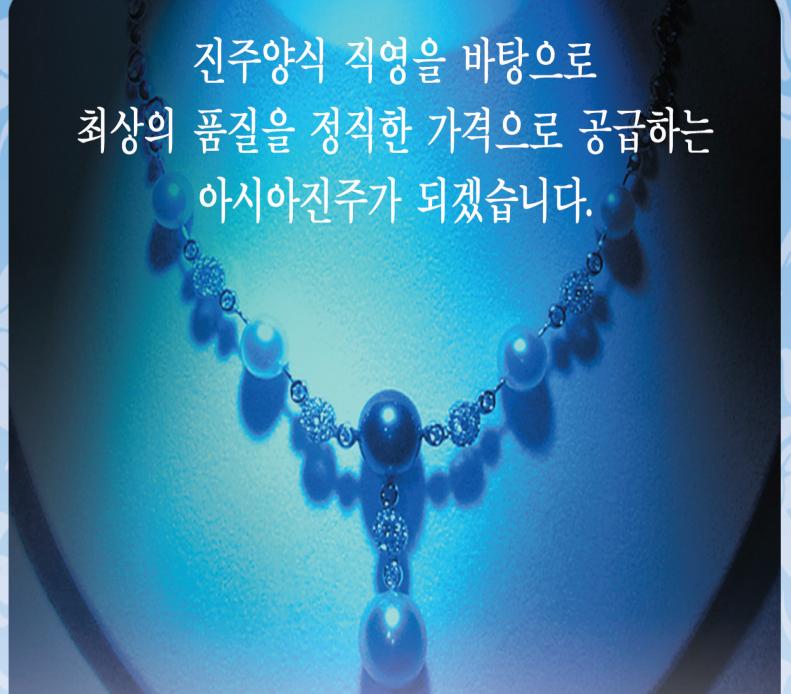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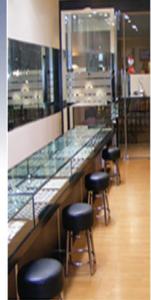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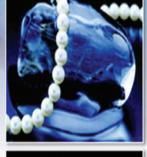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김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08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동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1	조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뜨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BE  
THE FIRST  
MOVER



KMK GROUP